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심란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엄지척! 키다리학교

일시 : 2022.11.26(토) 10:30-13:00

장소 :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 줌(Zoom)

키우자 Y다운 리더

- 인사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 1부사회 : 박윤애(한국YWCA연합회 키다리TF위원장)
- 2부사회 : 박민경(대전YWCA 키다리 졸업생)

키다리학교, 10년 돌아보기

- 박은실(한국YWCA연합회 국장)

키다리학교, 앞으로 앞으로

- 권예은(청소년자치연구소 청년활동가)
- 엄윤미(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
- 김대영(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우리들의 이야기

- 이채은(부산YWCA 키다리 청소년)
- 홍다운(순천YWCA 키다리 졸업생)
- 송소연(청주YWCA 키다리 졸업생)
- 오대근(대전YWCA 팀장)

키다리 네컷 사진전

- 키다리 연합 인스타 @y_kidali



한국YWCA연합회

목 차

일 정 표	3
인 사 말	4
키다리학교 10년, 돌아보기	6
YWCA키다리학교 10년, 또 다시 10년!	6
키다리학교, 앞으로 앞으로	43
#Change	43
실험과 기획, 디테일이 건네는 것	47
너의 스토리로 세계 속으로	61
우리들의 이야기	64
나의 키다리 이야기	64
우리들의 이야기	66
나의 ‘키다리학교’	67
크쌌도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Y-Place	70
참고 YWCA 키다리학교 소개	72

일 정 표

사회 : 박윤애((사)한국YWCA연합회 키다리TF위원장)	
10:30-10:40	인사말 : 원영희((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10:40-11:00	<키다리학교 10년, 돌아보기> YWCA키다리학교 10년, 또 다시 10년! : 박은실((사)한국YWCA연합회 국장)
11:00-11:30	<키다리학교, 앞으로 앞으로 (국내)> #Change : 권예은(청소년자치연구소 청년활동가) 실험과 기획, 디테일이 건네는 것 : 엄윤미(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
11:30-11:50	<키다리학교, 앞으로 앞으로 (국제)> 너의 스토리로 세계 속으로 - 김대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1:50-12:00	질의 응답
12:00-12:10	쉬는 시간
사회 : 박민경((사)대전YWCA 키다리 졸업생)	
12:10-12:50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키다리 이야기 - 이채은((사)부산YWCA 키다리 청소년) 우리들의 이야기 - 홍다운((사)순천YWCA 키다리 졸업생) 나의 '키다리학교' - 송소연((사)청주YWCA 키다리 졸업생) 크쌔도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Y-Place - 오대근((사)대전YWCA 팀장)
12:50-13:00	질의 응답, 폐회

인 사 말

원 영 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국YWCA ‘키우자 와이다운 리더!’ 키다리학교 10주년을 축하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YWCA는 100년 전인 1922년에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명칭에서 아실 수 있듯이, YWCA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젊은 여성들이 모여 희망의 세상을 꿈꾸며 기독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YWCA의 목적은 초기 로고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영·지·체를 의미하는 삼각형과 봉사를 의미하는 띠를 중앙에 두른 형태였고, 현재는 여성을 강조하는 W라는 모습을 통해 초기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키다리학교는 YWCA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 영혼 모두가 온전히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출발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기존 학교 외의 영역에서 주체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져, 행복한 청소년 시기를 누릴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이 사회의 건강한 리더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키다리학교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지난 10년 동안 21개 지역에서 총1,251명의 청소년들이 키다리학교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은 키다리학교 안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운영해나가면서도 갈등과 실패의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YWCA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오롯이 홀로 설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손잡을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키다리학교 10년! 많은 분들의 노고없이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YWCA연합회에서는 위원들과 실무자들의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었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회원YWCA와 협의하고 논의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지속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역YWCA에서는 대학·청년Y 회원으로 자원 활동을 해주신 키쌤님들, 회원YWCA 실무활동가로 밤낮으로 키다리들과 함께 해주신 크쌤님들, 또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YWCA 위원님들, 그리고 청소년 운동에 깊은 애정을 품으신 회장님들과 사무총장님들의 물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말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노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바로 키다리 여러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키다리 졸업생들과 오늘의 키다리들이 있기에, 비로소 키다리학교 10년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키다리학교의 성과이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키다리학교TF 박윤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실무활동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키다리학교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해나가길 바라며,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변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YWCA 키다리학교 10년, 또 다시 10년!

박 은 실
(사)한국YWCA연합회 국장

들어가며

YWCA 키다리학교는 “키우자, Y다운 리더”를 모토로 YWCA 청소년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토요대안학교이다. YWCA 90주년인 2012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시작한 지 11년째로 접어들었다. 특별히 2022년인 올해는 YWCA가 시작된 지도 100번째 해를 넘기고 있으니, YWCA에 10년 아릅드리 10개의 기둥이 있다면 그중 한 기둥이 키다리학교인 셈이다. 10년은 3,650일을 지나는 것이고 올해도 벌써 11월이니, 365일에서 31일과 남은 11월의 며칠을 빼다고 하면, 거의 3,980일을 이어온 것이다. 먼저, 키다리학교가 10주년을 이어오기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키다리학교 10년을 돌아봄에 있어서, 키다리학교를 왜 시작했는가, 누가 함께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의 발제는 키다리학교의 이후의 운영 방향을 함께 머리를 맞대며 이야기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키다리학교의 목적, 목표, 운영 성과, 이후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또한 발제자가 연합회 실무활동가로서 겪은 경험과 보고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였기에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밝혀둔다.

1. 왜 키다리학교를 시작했나?

가. YWCA 100년 비전 실현, YWCA리더십 승계를 위해 시작된 키다리학교

YWCA는 2012년 90주년에 100주년을 생각하며 여러 측면에서 돌아봄과 내다봄을 하였다. 당시 YWCA 100년이 되기까지 10년을 앞두고, YWCA가 100년을 넘어서 새로운 YWCA로 어떤 사명, 과제, 도전에 마주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논의를 이어갔다. YWCA는 왜 이토록 오랜 동안 “비전을 가지고 동시대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은 “Y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단순하지만 오래된 정답-‘Y는 사람이다’-을 얻어냈다. 이를 “Y리더십”으로 명명하고, 그 요소를 밝히려는 연구를 당시 YWCA위원이자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인 김은경 위원이 진행하였다. 그동안에도 YWCA활동가들을 위한 여러 교육 자료에서

“YWCA인재상”은 “민주시민실천가”, “하나님나라 일꾼”, “사회변화 촉진자”, “조직가” 등의 역할로 표현되고, YWCA에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하고 공유해왔지만, YWCA가 100주년을 넘어서까지 앞으로 리더십을 승계하려면 지속적으로 유지, 전승해야할 “YWCA리더십”의 구체적인 특징을 밝혀내야 하고, 그 특성은 곧 비전리더십, 팀리더십, 실천(이슈)리더십이라고 정리하였다.¹⁾

2012년도 5월에 키다리학교 공통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YWCA리더십”은 C(기독교 정신에 바탕 한)에 기초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중심적 비전을 제시한 비전리더십, 협력, 소통, 토의와 토론, 신뢰, 갈등관리 등을 통해 Association으로 일하고, 팀워크와 관계지향성을 지니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팀리더십, 시대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시급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문제들을 앞장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실천리더십으로 정리되었고, 키다리학교 공통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이 세 가지 리더십은 키다리학교의 근간이 되었다.²⁾ 많은 청소년들이 YWCA활동에 참여하며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이 “YWCA리더십”을 갖도록 “키우자, Y다운 리더”를 모토로 한 활동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당시 담당 실무활동가는 월간 원고에서 2012년 초부터 키다리학교TF팀 회의를 7회 가지면서, 키다리학교를 위해 교육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직접 대안학교를 탐방하여 학교의 가치와 운영 등도 배웠고, 토요학교의 모습, 회원Y별 프로그램 구성, 키다리학교 운영 방식 등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협의했으며, 그 중에서도 “Y다운 리더”가 누구인지, “YWCA리더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장 주요하게 논의하였다고 언급하였다.³⁾ 이전까지는 Y사람들이 “Y답다”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우리는 “Y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YWCA리더십”은 다른 리더십과 다름을 확인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Y다운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없었다면, YWCA는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YWCA리더십 승계”를 위한 특별 조치가 키다리학교였다.

나. 공교육의 대안인 교육운동으로 시작

YWCA가 90주년을 맞이한 2012년 한국YWCA 정기 총회(2012. 2. 10. 정동진)에서 사업계획과 9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토의를 하던 중, 한국 교육문제,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YWCA 100년 비전으로 청소년과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90주년에 선포된 “청·춘·여·찬 비전선언문” 중 청(靑)에는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도전하고 변화하는 젊은 YWCA와 사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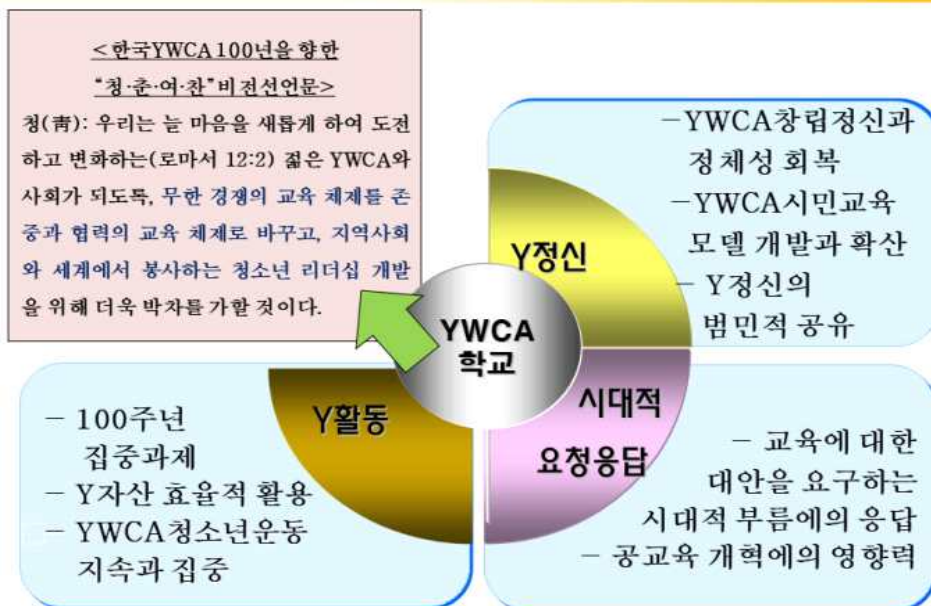
1) 김은경(2012). “YWCA 100년 비전을 향한 여성리더십 연구-한국YWCA 100년 비전을 향한 리더십 승계 과제”. 세종리더십개발원 리더십전문가과정 자료.

2) 2012. 5. 키다리학교 공통커리큘럼 워크숍 자료

3) “키우자 와이다운 리더”, 월간 『한국YWCA』(2012. 7+8월호). pp.16-17.

되도록, 무한경쟁의 교육체제를 존중과 협력의 교육체제로 바꾸고,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봉사하는 청소년리더십개발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선언한다.

YWCA는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무한경쟁 교육 현실로 인해 청소년의 삶이 날로 피폐해져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청년 장기 실업 등 청소년 문제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의 위기, 기능과 역할 저하, 각종 정책의 실패 현실에서 ‘교육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또한 교육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청소년 당사자, 부모 포함 성인, 교육 관련 종사자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회의 주요 가치를 전승하는 사회적 문제)이며, 단기간에 형성되지도, 변화되지도 않는 교육에 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YWCA 구성원들은 깊이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9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YWCA가 일제하, 가부장적 사회체제에서 젊은 여성들이 독립된 국가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각종 배움터 형식으로 담은 교육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YWCA 역사를 정의하고, 52개 회원YWCA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 운동도 유아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분야와 내용으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운동임을 정의한다. 회원YWCA들이 YWCA 창립정신을 담아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YWCA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운동영역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Y-틴, 대학YWCA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결의하고 연합회와 각 회원YWCA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실제 활동 참여 시간 확보조차도 어려운 현실에서, YWCA는 보다 적극적으로 “YWCA학교”를 설립하여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출처: YWCA학교논의 결과(2013. 8.). 1차 정책협의회 자료

이렇게 시작된 학교교육 대안에 대한 논의는 이후 2013년도에 학교TFT 운영, 2015년도에 100주년 준비위원회 산하 YWCA학교설립분과까지 설치되어 논의가 이어져 커리큘럼과 운영 방식, 소요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산출되었지만, YWCA학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현실 앞에 실제로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키다리학교로 설립취지와 인재상 등을 반영하여 토요대안학교로 전환, 운영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012년도 키다리학교 입학식의 한 조는 그들이 원하는 학교상(象)을 가사에 담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수리대신 사랑으로!
수직대신 수평으로!
성적대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키다리(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자)
학교는 말하지 대학 못가면 안되애애애~
(대학가면 다되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우리교육 현실이야!)
우리는 말하지 대학은 다가 아나아아아~
(노력하면 다되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야!)
수리대신 사랑으로!
수직대신 수평으로!
성적대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키다리!

2012년 7월 4개 지역이 시작한 키다리학교 입학식에서 자신들이 그리는 학교상을 위와 같이 노래한 것을 보면, 키다리학교는 피폐한 공교육의 대안으로, YWCA가 교육운동으로 강조하여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Y-틴의 대안

키다리학교가 시작된 또 하나의 이유는 Y-틴 활동의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과거 Y-틴 학교가 얼마나 많았으며, 학교마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무용담을 많이 들어왔다. 최근 100주년 화보집을 준비하면서, 1950년대 Y-틴 하령회로 모인 회원들의 모습, 전쟁 중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물품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는 Y-틴 회원들의 모습, 1970년대 어려운 농가에 가축을 보내러 가 농가 어머님들에게 Y-틴 깃발을 붙인 돼지를 전달하는 Y-틴 회원들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Y-틴 봉사활동”의 현장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후에도 1980년대 이후 환경, 지역사회 관련 봉사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것으로 기록

4) “키우자 와이다운 리더”, 월간 『한국YWCA』(2012. 7+8월호. pp.16-17.

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거에 비해 Y-틴 학교가 현저히 줄어들고 Y-틴 회원이 줄었을 뿐 아니라, 학교 동아리로서 Y-틴 활동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가 적어지고, 센터 동아리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Y-틴 지도교사나 청소년지도자는 Y-틴만의 특별한 특징을 담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각종 봉사활동, 취미활동,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였고, 동아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학교로 파견된 간사(실무활동가)들이나 지도교사, 청소년지도자에 의해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자기주도적 동아리 청소년활동으로서의 Y-틴 활동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물론 이때도 Y-틴 전국협의회로 모여서는 전국 중점운동도 스스로 정하고, 지역별 임원이나 전국단위 임원(중앙임원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하는 Y-틴 회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회의체나 행사를 주도하여 운영하였지만, 회원Y 단위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간사들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준도, 청소년 자치성의 수준도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Y-틴의 틀거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YWCA 청소년활동이 요구되었고, 키다리학교는 청소년들의 자발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연합회를 통해 회원Y에 소개되면서, Y-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회원Y나, Y-틴이 없어지거나 약해져서 재건이나 활성화를 원하는 회원Y들이 청소년 회원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키다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YWCA가 우리 사회를 정의, 평화, 생명의 사회로 변화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해온 여성리더십을 100주년을 넘어서 지속해서 이어가는 “YWCA리더십”의 승계를 위해, 영, 지, 체가 조화로운 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무한경쟁,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달고 있는 공교육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안적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 청소년회원조직운동인 Y-틴 운동에서 청소년 자기주도성과 자발성, 지역성, 실천성이라는 핵심가치를 잃어가던 때에 대안적 청소년 회원조직 운동을 펼치고자 키다리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2. 키다리학교에는 누가 함께하였나?

키다리학교에는 크게 참여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일컫는 “키다리” 친구들과, “운영진”이 함께했다. 운영진으로는 연합회와 회원Y에서 이어나 청소년 활동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과 청소년담당 실무활동가, 대학생·청년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위원들은 대개 프로그램 총괄 운영을 논의하였고, 실무활동가들과 함께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키다리학교 운영진의 인원은 회원Y마다 달랐고, 적게는 실무활동가 한 명만 있는 Y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무활동가를 포함하여 6명에서 많게는 16명까지 있었다. 실무활동가가 여러 명 함께하는 경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만이 아니라, 경력이 다양한 실무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경험을 나누며 운영을 협의하였고, 운영진이 특

히 많은 회원Y는 키다리 친구들의 멘토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운영진 회의도 연간 4회 이상 10회까지도 갖는 등 키다리 친구들의 활동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하는 그룹으로 함께하였다. 키다리학교 10년을 돌아보면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키다리학교 운영진”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매년 워크숍을 가졌다. 밤새워 우리가 왜 키다리학교를 하는지, 우리 운영진들의 지금 삶터와 일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키다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사회 경험도, 인생 경험도 많은 자원활동가들은 젊은 실무활동가들에게 “그럴 때가 있는 거야”라는 공감을, “그래도 당신은 잘해낼 수 있어”, “내가 함께해 줄게”라는 지지를 보내주셨다. 젊은 실무활동가들은 대학생 자원활동가(당시에는 봉사자라고 부름)운영진들에게 또 따뜻한 눈빛과 몸짓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거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구”, “당신이 키다리학교와 함께해주어서 고마워”, “주말마다, 참 대단해!”라는 말을 건네주었다. 당시 키다리TF 위원장인 김은경 위원과 김영자 위원, 최향숙 위원 등은 가본 곳 중에 좋았던 곳, 먹어본 것들 중 맛있는 것들을 추천하셨고, 운영진들은 워크숍 장소가 좋으면, 또 “다음엔 우리 키다리들이랑 여기 와봐야겠다”, “다음엔 우리 키다리들이랑 이거 먹어야겠다”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2020년에는 군산에 가서, 김대영 위원님의 EQ 코칭을 받으며, 여행처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대학생 운영진들 중에는 키다리 자원봉사가 너무 좋은데, 다음 해에는 취업준비로 인해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득이 사직을 하는 실무활동가는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며 새 길을 축복해주었다. 그렇게 운영진 또한 하나의 키다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연합회에서 키다리학교 실무를 오래 해왔던 천유란 팀장은 키다리 운영진 중에 코로나 직후 모든 청소년 활동이 멈췄던 그때, 그럼에도 키다리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까지 실행했던 실무활동가를 인상 깊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아쉬웠던 일도 “실무”라는 틀에 갇혀 마음껏 활동의 의미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즐기지 못했던 점을 꼽았다. 이렇게 “운영진”은 또 하나의 키다리학교 키다리들이었던 것이다.

“키다리 학교”라는 명칭이었기에, 연합회는 학부모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입학 시기에 학부모도 초대하여 간담회도 갖도록 권고하였으나, 개별로 문의하는 학부모들에게 활동을 자료로 안내하거나 상담하는 정도였고, 학부모 간담회를 가진 사례는 2014년 부산YWCA가 1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12월중 1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추후 자료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당시 결과 보고서에서 부산YWCA 센터 키다리학교가 학생들 대부분이 학부모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활동하여 자치성과 자기 주도적인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한 내용을 보면, 학부모의 지원이 컸던 사례였음을 알 수 있다.

“운영진”이라는 명칭은 초기부터 많은 토론이 있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하는 역할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하고, 키다리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그래서 키다리들보다 앞서지 않고 키다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사, 멘토, 지지자, 촉진자로서 ‘키다리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운영진’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논의에도 새로운 대체 용어를 찾지 못하고 계속 운영진으로 부르다가, 2020년도 연합회 키다리학교TF에서 키다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년 6월부터는 실무진은 “크샘”, 대학생·청년 자원활동가는 “키샘”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다.

키다리학교에는 “키다리”로 중1부터 고3까지 참여할 수 있다. 회원Y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친구들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중고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지속성이 더 있었다. 실제로 고2까지 활발하게 키다리로 참여하던 친구들이 고3이 되면서 전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에 키다리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회원Y도 있었다. 초창기에는 초등학교에서 갓 올라온 중1과 고2~3 친구들이 함께 대화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회원Y도 있었으나, 몇 해 지속운영을 한 회원Y에서는 학년 차이는 큰 어려움으로 남지 않았다고 하였고, 오히려 주제에 대한 공감이나 선호에 따라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잠시, 키다리학교 초창기인 2012년~2014년에 키다리학교를 시작한 고양, 청주YWCA의 학생들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⁵⁾ 이 키다리 친구들 중에는 3년간 키다리학교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2년간 참여한 친구들도 있다. 키다리학교는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초창기처럼 이후 회원Y에서는 2~3년간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중학교 2학년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간 참여한 친구들도 생겨났다. 키다리로 참여한 친구들 중에서 이후 회원YWCA 키다리 운영진으로 함께하는 경우도 생겨났고, 청주Y에서 2014년도에 참여한 키다리 중에서 한 명은 2022년 현재 연합회 키다리TFT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고양Y			청주Y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김O준	강O채	강O채	이O은	이O은	이O은
김O연	김예O	김O영	추O주	추O주	박O빈
김O나	김승O	김승O	신O호	최O혜	임O진
김O현	김O민	김O민	조O훈	조O정	전O주
김O진	김O슬	김O나	이O필	이O원	김O진
박O서	김O나	김O인	이O현	김O정	박O희
이O민	문O윤	김O수	송O연	우O진	손O연
이O영	박O서	문O윤	주O원	정O영	임O환
이O빈	서O원	박O아	김O경	조O정	김O현

5) 2012-2014 키다리학교 결과 운영 결과 보고서.

정O영	석O형	박O영	김O선		전O경
조O연	신O연	박O서	조O정		나O호
홍O연	신O현	서O원	이O선		강O우
	연O준	신O용	김O지		황O현
	이O연	연O기	송O연		강O웅
	이O재	이O연	이O섭		
	이O영	이O제	심O희		
	이O영	이O규	우O진		
	이O빈	이O영	고O근		
	임O영	이O빈			
	전O준	전O준			
	정O현	정O현			
	정O우	조O미			
	정O영	조O솔			
	조O미	조O연			
	조O연	조O원			
	채O병	조O환			
	최O아	주O윤			
	최O형	지O현			
	홍O연	홍O희			
		홍O연			

회원YWCA에서 2012~2014 키다리학교 운영진으로 함께한 분들과 해당 회원 YWCA에서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고양YWCA			
활동기간	성명	구분	역할
2012~2014	최향숙	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및 운영 및 자문 한국Y 키다리학교 TF
2012	한수아	자원활동가	중점운동위원회 위원장(2012)
2012	도명옥	자원활동가	중점운동 위원회
2012	윤현숙	자원활동가	중점운동 위원회
2012	최영임	자원활동가	중점운동 위원회
2012~2013	전선영	실무활동가	운영 및 진행/운영위원회
2012	서정희	실무활동가	운영 및 진행/운영위원회

6) 2012~2014 회원Y별 키다리학교 운영결과보고서.

2012~2014	유진수	자원활동가(대학청년)	운영위원회/보조진행
2013~2014	임상기	자원활동가(대학)	운영위원회/보조진행
2013	박미영	자원활동가(대학)	운영위원회/보조진행
2014	박정현	자원활동가(대학)	운영위원회/보조진행
2014	김세준	자원활동가(대학)	운영위원회/보조진행
2014	김진이	자원활동가	키다리학교 기자단 활동 지원

서울YWCA			
활동기간	성명	구분	역할
2014	강보경	실무활동가	프로그램 기획, 진행
2014	이종미	실무활동가	수퍼바이저
2012~2014	김영자	자원활동가	청소년팀 위원
2014.3~2014.6	전해은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진행 보조
2012~2013	김윤희	실무활동가	프로그램 기획, 진행
2013~2014	양선희	실무활동가	수퍼바이저
2012~2013	김병호	실무활동가	수퍼바이저

안양YWCA			
활동기간	성명	구분	역할
2013~현재	최정근	실무활동가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담당
2012~현재	박혜숙	자원활동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2014	김창숙	자원활동가	위원(키다리활동보조)

청주YWCA			
활동기간	성명	구분	역할
2012	곽성숙	자원활동가	키다리학교 활동을 위한 조언
2012	박상호	자원활동가	키다리학교 활동을 위한 조언
2012	엄승용	자원활동가	키다리학교 활동을 위한 조언
2012	연지민	자원활동가	키다리학교 활동을 위한 조언
2012~2014	최상숙	자원활동가	키다리들이 끝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012	최종례	자원활동가	키다리학교 활동을 위한 조언

2012	정은경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
2012	김태순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
2012	유영경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
2012~2013	이한나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
2012	이혜정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
2012	최지만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
2012	정미향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계획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간사에게 조언
2013~2014	김희진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활동을 함께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2014	임수정	자원활동가	키다리학교 운영 보조 활동
2014	박보람	실무활동가	키다리들이 활동을 함께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한국YWCA연합회 키다리학교 TF7)			
2012	청년리더십 팀	자원활동가: 백혜진, 김은경, 한미미, 김경희, 김향규 Y키다리학교 TF팀 책임위원: 김은경 실무활동가: 박은실, 최지혜, 고은희, 김찬빈	
2013	이름	구분	소속
	김은경	자원활동가	연합회
	박은실	실무활동가	연합회
	조은선	실무활동가	연합회
	최향숙	자원활동가	고양Y
	전선영	자원활동가	고양Y
	오수현	자원활동가	고양Y
	조승리	자원활동가	광주Y
	박송희	실무활동가	광주Y
	박하현	자원활동가	대전Y
	정연봉	자원활동가	대전Y
	안성현	실무활동가	대전Y
	김영자	자원활동가	서울Y
김윤희	실무활동가	서울Y	
김창숙	자원활동가	안양Y	

	최정근	실무활동가	안양Y
	이한나	실무활동가	청주Y
	김희진	실무활동가	청주Y
2020-2021	백혜진	자원활동가	연합회
	최향숙	자원활동가	고양Y
	김대영	자원활동가	연합회
	오대근	실무활동가	대전Y
	천유란	실무활동가	연합회
	박은실	실무활동가	연합회
2022	박윤애	자원활동가	연합회
	김대영	자원활동가	연합회
	서진희	자원활동가	외부 시민단체
	권예은	자원활동가	외부 청소년단체
	양유정	실무활동가	세종Y(현재 사직)
	권고은	실무활동가	부산Y(현재 사직)
	박민경	자원활동가(청년)	대전Y
	전유경	자원활동가(청년)	청주Y
	최수산나	실무활동가	연합회
	이은혜	실무활동가	연합회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연합회와 지역이 함께,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청년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다양한 경험과 지식, 기술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비전과 팀, 실천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로 자라도록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일에 함께 머리를 맞대었고, 현장에 함께 했다. 운영진들은 프로그램을 위한 지식자원을 동원하였고, 키다리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강사로 연결하기 위해 인적자원도 동원하였다. 연합회의 활동 지원비가 있었지만, 늘 부족한 간식을 더 제공하기 위해 물적 자원을 선뜻 내놓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나, 키다리 중에서 학교 내 관계, 교우 관계, 키다리 내 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공식, 비공식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다.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YWCA청소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지원한 자원활동가들과 청년활동가들은 “YWCA리더십”을 키다리학교를 통해 나누었고, 여러 가지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운동가로서 비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격주 토요일

7) 연합회 키다리TF 위원 명단.

마다 키다리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실무활동가가 주도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도하도록 할까”⁸⁾ 고민하며, 지역연대와 활동나눔을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간 실무활동가들의 시간과 정성 또한 아주 값지고 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3. 키다리학교에서는 무엇을 했나?

키다리학교는 운영진이 1년 운영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3월에 키다리 회원을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입학식을 한다. 입학식 이후 스스로 회의를 통해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할지 정한다. 주제별 활동은 상하반기에 중요한 행사를 한 개씩 넣고 일상 활동을 통해 준비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매주 다양한 학습이나 토론 활동, 체험활동을 기획하기도 한다. 보통은 1년의 중간 즈음 다른 지역 키다리들과 만나는 지역연대모임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듬 해 2월 전국 키다리 활동 나눔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을 공유하고 친교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키다리학교 주제를 크게 요약하면, YWCA 목적인 정의, 평화, 생명운동이다. 특히, YWCA가 추구하는 영, 지, 체가 조화로운 전인적 인간 발달을 위해 자기탐색활동, 배움활동, 봉사활동, 신체활동, 친교활동, 지역사회 체험활동 등을 한다. Y-틴 주제에 따른 활동을 접목하여, 청소년 인권, 행복추구권, 청소년 진로, 평화, 환경과 기후 위기 등의 활동을 주제로 정하기도하고, 인문학, 리더십, 역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변화 모색등과 같이 포괄적인 주제를 잡고 세부 활동 내용을 협의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키다리에서는 주로 “회의를 참 많이 했다”, “여행을 한 것이 좋았다”, “우리가 직접 정하고 만들어서 좋았다”, “친구들과 친해져서 좋았다”라고⁹⁾ 기억하는 키다리의 고백을 참조해보면, 활동 내용을 정하기 위해 “토의와 토론”을 일상화하였다는 것과, 친교 활동, 야외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회원YWCA의 한 해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주제는 포괄적으로 정하되, 키다리들이 협의하면서 내용을 채우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어둔 주제로 선정하였고, 초기 키다리학교의 운영 방안대로 필수활동과 선택활동, 영, 지, 체 활동을 그대로 담되, 키다리들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위한 지역 연대모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 키다리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 해에 주요하게 실시하여야 할 행사(어울림마당 부스)를 계기로 본인들의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을 통해 공유하는 과정을 설계하였고, 키다리 회원들을 지원하는 운영진의 일정도 면밀히 계획하였다.

8) 매년 키다리학교 결과보고서에 실린 실무활동가들의 평가 내용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이다.

9) 회원Y별 활동보고 참가자 소감 중.

10) 2019년 대전YWCA 키다리학교 운영 계획서

프로그램명	2019 대전YWCA 키다리학교 - 「행복하자~ 우리!」 (2019년도 활동주제 - 청소년 행복 추구권)		
기간	2019. 3. 2 ~ 2020. 2. 28	장소	대전YWCA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대상	중·고등학생 35명	모임시간	매월 1·3주 토요일 10:00~13:00

▣ **활동 세부내용**

- **회원모집 계획**

- : 학교 키다리 체제에서 다양한 학교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센터 키다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 : 많은 회원 수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30명 이내의 회원을 선발하여 내실화 있는 키다리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총 6개 학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0명 모집이 되어 추가 모집 중이다.

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남	여	남	여	
2017	-	2명	13명	17명	32명
2018	-	-	18명	15명	33명
2019 (목표)	-	-	15명	20명	35명

- **운영진 모집 계획**

- : 운영진은 이전 전직 청소년 담당 실무자 및 현직 실무자로 구성
- : 대학청년Y 지도자 모색을 통하고 키다리학교 활동 회원으로 선발하여 키다리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운영진과 정기적 평가회의 진행하여 활동의 방향과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연간 활동일정**

월	키다리 회원	운영진
2019/3	키다리학교 신입회원 면접 - 일시 : 2월 20일(수) 16:00 3월 10일(일) 14:00 - 장소 : 대전YWCA - 내용 : 신입회원 10명 면접 진행 (2019년도 키다리회원 13명)	키다리학교 운영진 사전교육 - 일시 : 3월 10일(일) 15:00 - 장소 : 대전YWCA - 내용 : 키다리학교 안내 및 운영진의 역할 교육, 활동 정보 공유

월	키다리 회원	운영진
	[필수] 키다리학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3월 10일(일) 15:00 - 장소 : 대전YWCA - 내용 : 키다리학교 설명, 아이스 브레이크 및 2019년도 활동 주제 선정	
4	[선택] 상반기 주제관련 활동 계획 · 청소년 행복도 설문조사 운영 · 청소년 행복활동 운영 (영화관람, 게임대회)	-
5	중구청소년어울림마당 부스운영 - 일시 : 5월 18일(토) 13:00 - 장소 : 우리들공원 - 내용 : 키다리학교 홍보부스 운영 대학청년Y Y-틴 연합워크숍 - 일시 : 5월 25일(토) ~ 26(일) - 장소 : 미정 - 내용 : 대전YWCA 청소년 대학청년 회원 워크숍 진행	-
6	[선택] 상반기 주제활동 운영 · 청소년 행복도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도출 · 대전 키다리 행복 활동	중부지역 키다리학교 운영진 모임 - 일시 : 6월중 - 장소 : 미정 - 내용 : 키다리학교 지역연대를 위한 운영진 회의 진행
7	[필수] 올빼미 활동 - 내용 :키다리 영지체 활동 운영 · 청년예수 「사람」 파트를 통한 영성 키우기(영) · 행복추구권 설문 도출을 통한 청소년 행복추구를 위한 선언문 만들기(지) · 회원 게임 진행 및 친교활동(체)	키다리학교 운영진 운영회의 - 일시 : 7월 중 - 장소 : 대전YWCA - 내용 : 키다리학교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운영 방안 논의
8	[선택]하반기 주제활동 기획 · 상담기법을 활용한 행복상담부스 (학교폭력, 자살예방 캠페인) · 청소년 행복활동 운영 (키다리 플리마켓, 청소년 행복파티) [필수]중부지역 키다리 연대모임	-

월	키다리 회원	운영진
	· 연대지역 선정에 따른 연대 모임 기획 운영(당일형)	
9	중구청소년어울림마당 부스운영 - 일시 : 9월중 - 장소 : 미정 - 내용 : 청소년 행복 추구를 위한 활동 부스 운영	-
10	중구청소년어울림마당 부스운영 - 일시 : 10월중 - 장소 : 미정 - 내용 :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결과 안내 부스 및 청소년 자살 예방 캠페인 진행	-
11	[선택]하반기 주제활동 운영 · 온/오프라인 상담진행 · 청소년 행복활동 운영 : 플리마켓, 행복파티 진행	-
12	차기년도 신입회원 모집준비	키다리학교 운영진 운영회의 - 일시 : 12월 중 - 장소 : 대전YWCA - 내용 : 키다리학교 하반기 활동 평가 및 차기년도 신입 회원모집 관련 논의
2020/1	활동나눔모임 준비 - 활동나눔모임 발표 및 참가 준비 차기년도 신입 임원선출 - 일시 : 1월 중 - 장소 : 대전YWCA - 내용 : 키다리학교 2020년 신입회 장 선출	-
2	[필수] 활동나눔모임 참석 - 일시 : 2월중 - 내용 : 전국 키다리 활동 발표 및 친교 활동	-

-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 운영 계획

[필수과정]

- 키다리학교 오리엔테이션 : YWCA 및 키다리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실
무자 및 전년도 키다리 회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 **올빼미 활동** : 키다리학교가 추구하는 영·지·체를 다양한 활동으로서 쉽게 알고 이해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연대모임** : 연 1회 키다리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진행한다.
 - **활동 나눔 모임** : 전국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모임에 참여하고 활동을 공유하고 친교활동을 진행한다.
- [선택과정]**
- **주제 활동** : 활동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이해를 통한 세부 활동 기획 운영한다.

다음 표는 2012년~2022년까지 11년간 키다리학교에 참여한 총 21개 회원YWCA별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¹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영 Y	4	6	9	11	14	14	17	8	8	7	7
거제							역사	놀며 배우는 청소년 놀이터	진로		
고양	평화여행, 씬, 축제 : 스스로 계획하는 여행	평화	평화	정의란 무엇인가	도시농부학교		사회문제와 내 삶의 문제				
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알리기	청소년이 진행하는 축제		청소년 문화생활						
군산							다양한 주제				
대전		키다리 이해	키다리 내실화	청소년 행복 추구권		인권	다양한 주제	청소년 행복 추구권	진로탐색(미정 :미래를 정하자!)	진로탐색(미정 :미래를 정하자!)	키다리 Deadline(연대, 실천)

11) 2022년 5월부터 연합회 키다리학교를 맡은 이은혜 간사가 취합한 계획서와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을 재구성한 것임. 자료가 없는 부분, 연도별 회원YWCA별 운영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동해						환경, 인권, 진로	다양한 주제				
마산							내 안에 숨은 재능 찾기				
목포											지역, 환경
부산			Y-틴 재건기 반 마련	공동체 와 단합	평화, 리더십, 청소년 유해환 경, 공동체 성, 환경		다양한 주제	나를 알고 사회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나, 너, 우리 (진로, 환경)		기후위 기 환경
서울	인권		인권- 연극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	키다리 히어로 어벤저 스 (다양한 주제)	다양한 활동	다양한 활동 (위안부, 기후위 기, 평화통 일)	앙트러 프리너 십	
성남					위안부	인권과 환경	청소년 역사탐 험가	사회적 경제, 공유경 제			
세종			평화와 통일				지역사 회변화 프로젝 트		다양한 활동 (봉사, 공예)	다양한 활동(친 환경 텃밭, 나트룸 줄이기, 벽화 봉사)	청소년 행복권
순천							와이키 키 드림 (진로탐 방)	진로활 동 (꿈을향 해 step up)	기후변 화 및 환경문 제	환경 (나는야! 지구 지킴이)	환경, 기후

안양	재능기부	키다리	주도성	재능나누기	민주시민, 위안부		역사				
익산							다양한 프로그램				
창원							행복한 쉼터(다양한 활동, 탈핵중심)	다양한 활동 (봉사, 환경, 어울림마당)	사회문제	기후위기	디지털리터러시, 기후
천안						다양한 주제, 인물별	리더십				
청주	키다리 (인문학, 평화)	주도성	키다리	평화	평화 (평화의 집은 어디인가)	다양한 주제	다양한 활동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	다양한 활동 (진로, 역사, 환경)	다양한 활동 (역사, 협력과 리더십, 지역사회 문제)	기후위기	기후위기 실천
충주				생명	마을과 함께						
평택			평화통일		환경		환경				
하남				평화	환경, 평화						

지역 곳곳에 YWCA가 있는 YWCA키다리학교에서만 가능한, 키다리들의 기대와 좋은 평가가 이어진 또 하나의 키다리 활동은 바로 지역 연대모임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들(실상은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도 않지만)과 함께 참여하는 일일 프로그램인데, 지역 연대모임의 시기, 주제, 장소를 정할 때도 가능하면 각 회원YWCA 키다리들이 의견을 내고, TF로 준비를 하게 하는 등 참여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였다. 때로 지역간 키다리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각 회원Y 키다리들의 의견을 받아 키다리 운영진들이 기획하기도 하였다.¹²⁾

지역명	(북부지역 1) 고양Y, 서울Y, 성남Y	
사업개요	주 제	"평화" 일일캠프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모임을 통한 하반기 키다리 활동 동기부여 • 다양한 신체활동과 교제를 통한 평화의식 구축 • 미션활동을 통한 Y다운 정체성 확립
	주 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 브레이킹 ; 레크레이션 • 신체활동 ; 물총 런닝맨, 스포츠 활동 등 • 미션활동 ; 카드섹션, 몸으로 단어 표현하기 등 • 식사교제 ; 바비큐 파티
	일 시	2017년 9월 초
	장 소	미사리 조정체험장 or 노을 캠핑장
	참가인원	총 40명(지도자 10명 / 청소년 30명)
지역명	(북부지역 2) 동해Y, 안양Y, 평택Y	
사업개요	주 제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
	목 적	키다리 연대활동 하루 동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활동을 몸소 실천해본다.
	주 요 프로그램	12:00 - 14:00 : 점심식사 및 이동 14:00 - 15:00 : 레크리에이션 15:00 - 16:00 : 자전거 타고 경포호 돌기(4.5km) 16:00 - 16:50 : 환경과 에너지 이야기 나누기 마무리 활동(미션확인) 및 종료
	일 시	2017년 8월 11일 (금)
	장 소	강릉 경포호
	참가인원	총 24 명(지도자 3 명 / 청소년 21 명)
지역명	(서부지역) 군산Y, 광주Y, 익산Y, 순천Y	
사업개요	주 제	'청소년인권' 손끝으로 전하다
	목 적	-지역사회의 역사를 통해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발견해 본다.

요	-인권(노동권, 참정권, 인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다시 고지해본다. -키다리연대모임으로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미륵사지박물관	도착
		10:30~12:00	미륵사지박물관 탐방	역사탐방 미션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샌드아트 표현기획	청소년인권표현
		15:00~16:30	샌드아트체험	
		16:30~17:00	연대모임 소감나누기	
	일 시	2017년 8월 18일(금)		
장 소	익산(미륵사지 박물관, 샌드아트)			
참가인원	총 30명(지도자 4명 / 청소년 26명)			
지역명	(중부지역) 대전, 천안, 청주			
사업 개요	주 제	YWCA 운동 이해와 지역키다리 연합 활동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의 비전(정책과제) 탐구하기 - 키다리의 비전(영, 지, 체) 활동 기획 및 진행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역 키다리 연합 활동 진행 		
	주요 프로그램	영 : 키다리가 생각하는 YWCA 청소년 운동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UCC로 제작해 보기		
		지 : 각 회원Y별 활동 주제 발표회 중점운동 캠페인 활동 진행		
		체 : 물놀이(수영장, 물총놀이)활동 진행		
	일 시	2017년 8월11~12일		
	장 소	공주 동학사계곡		
참가인원	총 45 명(지도자 5명 / 청소년 40명)			

12) 2017년도 키다리학교 지역연대모임의 계획서.

다음은 연대모임에 참가한 키다리들의 평가이다.

키다리평가1

- 미륵사지박물관에서 문화해설을 들으면서 탐방할 수가 있어서 즐거웠다.
- 문화탐방미션을 통해 유물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지역 키다리끼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이색적인 샌드아트체험을 통해서 청소년인권을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 보드게임을 통해서 타 지역 키다리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키다리평가2

- 샌드아트로 나만의 이야기,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감이 증진될 수 있었던 기회였음.
- 단체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나 자신이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음.
- 미륵사지 석탑 복원과정을 볼 수 있었던 색다른 경험.
- 미륵사지 석탑에서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해설을 열심히 들었지만, 역사공부에 도움이 되었음.
- 지역Y 친구들과 함께 소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음. 시간이 짧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 YWCA 회원들 간의 뜨거운 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음.

지역 연대모임은 YWCA키다리학교 키다리들이 만나서, 키다리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신이 속한 YWCA키다리학교의 활동을 나누기도 하고 다른 지역 키다리학교의 사례를 듣기도 하고, 함께 체험을 하는 만남의 자리이다. 여기서 키다리들은 다른 키다리들의 모습을 본다. 다른 지역 키다리학교 운영진의 모습도 본다. 만남을 통한 친교는 물론이고, '키다리'라는 자긍심, 소속감이 증진되었고, 키다리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더 가지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¹³⁾

일 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갖는 활동 나눔은 그야말로 축제의 자리이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멈추기 전까지 매년 1박 2일의 활동나눔(졸업식)을 가졌다. 키다리학교 운영 회원YWCA가 17개로 가장 많았던 2018년도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은 키다리 친구들과 운영진을 포함하여 60여명이 참여하여 친교활동, 공동체활동, 회원YWCA 키다리학교 활동발표를 가졌다.¹⁴⁾

* 2018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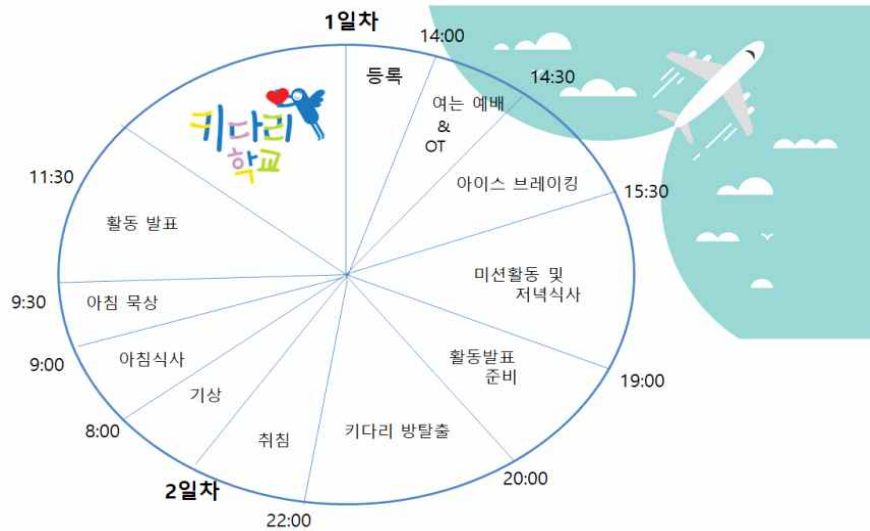
- 주제: 키다리와 떠나는 Dreamship!
- 일시: 2019년 1월 25일(금) 14:00 ~ 26일(토) 13:00
- 목적: ① 키다리학교 2018년 활동 공유

13) 2017 키다리학교 연대모임 결과보고서.

14) 2018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자료집.

- ② YWCA리더십상에 근거한 청소년 리더십 역량 강화 활동
- ③ 전국 키다리학교 청소년 간의 교류

- 일정:



키다리학교 활동의 결과를 나누는 형식은 회원YWCA마다 달랐다. PPT로 보고하기도 하고, 상황극이나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만,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활동 나눔 시 각 회원YWCA 키다리들 모두가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에, 누구나 무대에 서야했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활달한 성격을 지닌 키다리는 발표를 하였지만, 두 해째 보고용 판넬을 들고 있는 친구도 있었다. 활동보고가 경연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키다리들은 각기 다른 키다리들의 성장 이야기를 들으며 박수를 힘껏 쳐주었다. 특히나, 지난 해 만났던 아주 소극적인 친구가 많이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본 키다리친구들은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 키다리 활동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도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 활동의 의미를 몇 장의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 2020년에는 활동 결과를 각자가 영상으로 찍어 남기는 방식으로 활동 평가를 나누었다. 영상 속에서 “평소엔 학교에서 갇혀 있는데 키다리에서는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 “계속 오고 싶다”, “평소에 못해본 활동을 친구들과 하는 것이 마음에 남았다”, “자주 밖에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키다리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키다리 친구들이 가족처럼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미있다”¹⁵⁾라고 말하는 키다리 친구들을 보면서, 코로나나 여타의 교육 환경들로 인해 활동의 장애물이 많았을 지라도 키다리학교는 키다리 친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 2020년 키다리학교 활동 평가(키다리 인터뷰 영상 중에서).

4. 키다리학교와 Y-틴 활동의 차이

위에서 정리된 키다리학교의 주제를 보면 Y-틴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회원YWCA에 따라서는 Y-틴 친구들을 하나의 동아리로 묶어 키다리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YWCA도 있어서, 활동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참여하는 친구들은 Y-틴으로도 키다리로도 불리웠다. 또 다른 회원YWCA에서는 Y-틴 친구들에게 키다리학교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Y-틴 활동 외에 키다리학교 활동에 따로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Y-틴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내고 인준식을 가지고 Y-틴 배지를 제공하는데 비해, 키다리학교 참여자는 회비를 내지 않았다. 당시, 어느 회원YWCA 실무활동가는 “Y-틴 회원들은 회비도 내는데, 키다리학교보다 재미도 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고, 신경도 덜 써주는 것 같고,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키다리학교 참여자의 경우에는 1인당 간식비도 Y-틴 보다 넉넉하여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에 대해, 같은 청소년을 대하는 청소년활동가로서 마음이 좋지 않다”는 고민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Y-틴 회원은 YWCA청소년회원으로 회비를 내면서 자치활동을 하고, 키다리 친구들은 청소년 토요일안학교 참여자로서 자기주도적 교육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키다리학교로 Y-틴이 없던 회원YWCA가 Y-틴을 학교나 센터(본부)에 조직하게 된 회원Y 사례도 있었고, 학교나 센터에서 Y-틴 회원이 점점 적어져 키다리학교만 운영하는 회원Y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Y-틴과 키다리학교는 유사하게 느껴졌을까? 가장 주요한 원인은 둘 다 YWCA목적에 가치를 둔 청소년활동이기에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와 영, 지, 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회원YWCA 실무 여건 상 Y-틴 담당자와 키다리학교 운영진이 완전히 별도로 운영될 수 없기에,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활동을 기획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는 제도가 허락되던 때까지 Y-틴이나 키다리학교 모두 참여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을 유인책으로 활용했었다.

하지만, 키다리학교를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모집부터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누구나”를 초대하였고, 학교 단위나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키다리학교에서는 운영진도 참여 키다리들도 모두 Y-틴 활동에서보다는 청소년들의 자발성, 자기주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고, 어떤 정해진 결과가 없다는 ‘열린 결과’와 ‘실패해도 괜찮으니 마음껏 해보라’는 메시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흐르고 있었다. 두 번째 차이는 Y-틴은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키다리학교는 리더십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 Y-틴은 주로 같은 학년들끼리, 또는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활동을 하지만, 키다리학교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다양한 학교, 학년 친구들이 함께 활동을 한다. 센터 Y-틴의 경우에도 학교나 학년은 섞여 있지만, 환경, 평화, 연극 등 주제나 활동이 한두 가지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키다리학교는 참여하는 키다리들이 주제를 정한다. 결국 Y-틴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키다리학교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YWCA목적과 가치에 기반 해 청소년활동을 하는 것은 같지만, 조금 더 청소년 친구들에 의한, 청소년 친구들의 프로그램이길 바라는 “열린 청소년운동”으로 키다리학교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5. YWCA키다리학교와 타 단체 청소년활동과의 차이

YWCA키다리학교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지도교사와 청소년지도자 중심의 Y-틴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타 단체 청소년활동들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성”은 매우 강조하는 측면이다. 역사적으로는 학교 단체활동으로서 법에 의해 권장되던 몇 개의 단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등)에 비해 YWCA활동이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선호되지 않던 때도 있었고,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서 지정되고 지도교사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학교 밖 단체 활동 지도자가 있는 YWCA가 학교 내 지도교사로만 운영되던 단체활동에 비해 유리하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단체활동의 축소와 봉사활동 학생부 미기재로 인해 학생들은 교과활동에 치우친 대입에 대응하기 바빠 대부분의 단체활동이나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YWCA키다리학교나 타 단체 청소년활동 모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두 활동의 근본적인 차이는 첫째, C(Christianity)정신에 기반한 YWCA목적성에 있다. YWCA가 기독교정신에 근거하고 있지만 특히나 청소년활동에서는 ‘종교성’의 차원이 아닌,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약자를 돌보고 사회의 부정의와 맞서고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C정신을 강조하고, 이 정신을 지닌 리더십을 YWCA리더십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키다리학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을 통해, 체험을 통해, 만남과 연대를 통해 스며들듯이 느끼는 것이다. 둘째는 YWCA키다리학교는 YWCA를 통해 지역사회와 전국 네트워킹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키다리학교 운영진은 회원YWCA 단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은 물론이고, 지역간 전국 단위까지, 또한 글로벌 단위까지 YWCA네트워크 안에서 연결하고 지원하는 체제 안에서 운영되었다. 지역모임이 지극히 자연스러웠고, 일년에 두 번 이상 진행된 전국모임도 참여도가 높았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단위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된 키다리학교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키다리친구들의 관심 영역이 어디로 뻗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할 환경은 YWCA조직체가 갖는 태생적 구조 속에서 이미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운영진의 사명감과 헌신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로 말한 C정신과도 이어져 있고, 키다리학교의 세 차원의 리더십 중 비전 리더십과도 연결되어 있다. 운영진은 키다리학교의 세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사람들로, 청소년들을 정의, 평화, 생명의 리더들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부르심에 응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청소년 활동이 그러하지만, 단기간에 쉽사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저 오늘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인 것이다. 타 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이, 몇 회나 행사를 했느냐,

어떤 친구들을 단체 대표로 내보내 단체 이름을 드러나게 했느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 키다리학교는 상대적으로 한 키다리 친구의 변화에 주목했고, 한 키샘, 한 크샘 님의 활기찬 미소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자부한다.

6. 숫자로 보는 키다리학교

<키다리학교 운영 회원Y와 지원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연차
4개	6개	9개	11개	14개	14개	17개	8개	8개	7개	7개	
					거제	거제	거제	거제			4
고양	고양	고양	고양	고양	고양	고양					
					군산	군산					7
	광주	광주	광주	광주							2
				동해	동해	동해					4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10
						마산					1
										목포	1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9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10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5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5
				순천	순천	순천	순천	순천	순천	순천	7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7
					익산	익산					2
			창원	창원	창원	창원	창원	창원	창원	창원	8
					천안	천안					2
청주	청주	청주	청주	청주	청주	청주	청주	청주	청주	청주	11
			충주	충주							2
		평택		평택		평택					3
			하남	하남							2
	회원 Y당 100 만원	회원 Y당 100 만원	회원 Y당 100 만원 (B형 지원)	회원 Y당 80만 원	회원 Y당 80만 원	회원 Y당 80만 원	회원 Y당 80만 원	회원 Y당 80만 원	회원 Y당 80만 원	회원Y 당 80만 원	

<키다리 참가자 수>¹⁶⁾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계
거제						39	14	-		53
고양	12	30	31	35	21	21				150
광주		5	5		10					20
군산						7				7
대전		10	12	12	-	31	35	15	15	130
동해					-	12				12
마산						11				11
부산		8(자체)	21	20	11	-	12	16	16	104
서울	12	12	11	-	-	17	12	9	18	91
성남				-	23	30	21			74
세종			15			5		11	11	42
순천					-	20	20	20	35	95
안양	10	20	30	-	18	39				117
익산						14				14
창원					-	50	27	-	15	92
천안						12				12
청주	19	8	13	18	25	20	24	22	11	160
충주				10	15					25
평택			10		11	11				32
하남				-	10					10
계	53	93	148	95	144	339	165	93	121	1,251

<키다리학교 운영진 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회원Y 실무활동가 수	11	7	14	-	14	-	26	10	10	11	103
회원Y 자원활동가 수	13	11	19	-	14	-	39	21	17	12	146
계	24	18	33	-	28	-	65	31	27	23	249

7. 숫자로 보이지 않는 키다리학교

키다리학교 전 담당자였던 천유란 팀장은 2020-2021 키다리학교 연구TF 1차 회의를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시기별 주요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¹⁷⁾

16) 2017년도 참가자 수와 관련한 자료는 분실되어, 추후 회원Y와의 소통을 통해 확보예정. 연도에 따라 참가인원이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년도	회원Y 주요이슈	연합회 주요이슈
2012 ~2013	-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정해진 틀 없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됨. 이는 참여자와 운영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운영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	- 새로운 YWCA 청소년 운동으로 키다리학교 전개
2014 ~2015	- 운영 연차별, 특히 신규 운영진 교체에 따른 회원Y 별 프로그램 차이가 나타남.->키다리학교 운영은 최소 3년 이상 지속해야 할 필요 시사 - 세종Y 대학Y 키다리학교를 차세대 리더십 발굴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대학Y 경우 정해진 이슈로 일련의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적합했음	- 2015년 청소년단체 생활기록부 등재단체 선정
2016 ~2017	- 키다리학교 출신의 운영진이 나타남(대전Y, 서울Y) : 회원Y 리더십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남 - 2012년 초기 기준 모든 회원Y의 실무담당자와 운영진이 변경됨. 이에 따른 회원Y 실무담당자의 키다리학교 이해가 필요한 상황	
2018 ~2019	- 기존의 구조로 Y-틴 운영이 어려운 회원Y가 청소년활동을 시작함(거제, 군산, 평택 등) 이 중 거제와 군산은 Y-틴 활동으로 확장되었음.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2018~2022년) - 키다리학교 운영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
2020 ~2021	-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 필요 - 청소년회원 모집, 청소년활동 변화, 현 청소년 이슈에 적합한 방향 제시 필요	- 청소년단체 학교생활기록부 중단 예정(2021년): 지역 중심의 청소년운동 전개 필요

또한 금번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담당자인 이은혜 간사는 위에서 보이는 숫자들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운영보고서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주요 요인과 결과,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7) 2020-2021 키다리학교 연구TF 1차 회의자료.

년도	전년도 보완사항	진행사항/운영보고서에 따른 피드백	요인과 결과
2012 - 2013		* 초기 단계: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여됨. (운영진과 참여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운영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운영에 어려움 있었음)	* 정해진 틀이 없음 * 키다리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 형식 필요성 인식
2014 - 2015	* 키다리학교 매뉴얼 정리 #키다리학교 매뉴얼(최종)	* 이전보다 원활하게 프로그램 진행.	* 매뉴얼의 실효성 확인
		* 회원Y별 프로그램 차이가 나타남. (3년차 고양 : 참여자 스스로 기획, 결정, 실천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세우고 3년간 지속, 자발적 활동이 확산되었다고 평가) (3년차 안양: 2013년에 기반을 다진 후 2014년에는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움직임 등을 보여 키다리 주도성 및 기획력을 달성했다고 평가) (2년차 광주: 주제선정, 방법연구, 재료준비 등의 전과정에서 청소년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축제를 운영하였고, 회차를 더할수록 자발적 역량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 (1년차 평택: 회차를 더할수록 참여도와 적극성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 #2014년도운영보고서	* 운영연차 * 키다리학교 운영은 최소 3년 이상 지속해야함이 시사됨
		* 운영실무진의 키다리학교 이해 어려움 호소	* 운영진 교체(2012년 키다리학교 사업 시작 당시, TF에 참여했던 자원·실무활동가들이 상당수 교체됨) * 연합회가 주관한 운영진 워크숍은 모든 회원Y 운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됨. 신규 운영진의 키다리학교 이해와 방향모색에 한계가 있음.

		* 전체 워크숍과 별도로 신규 운영진을 위한 키다리학교 워크숍 필요성 시사
	<p>* 부모의 협력에 따른 다양한 결과 확인 (평택: 학부모의 활동 지지와 간식비 지원으로 모임 활성화) (서울: 잦은 모임 횟수로 인한 학부모의 반대로 중도탈락자 발생) (부산: 부모의 지원에 따라 오히려 참여 학생들의 자치성과 자기주도성은 떨어졌다고 자체평가) * 대부분의 회원Y가 부모대상 교육, 간담회 등은 실시하지 않음 #2014년도운영보고서참조</p>	<p>*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시, 부모는 꼭 필요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이면서 한 편으로 방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TF 당시, 학부모의 적당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을 확인.</p>
	<p>* 키다리학교로 인한 청소년운동 활성화(부산YWCA의 경우는 이전까지 Y-틴이 형성되어있지 않았는데, 당시 키다리학교가 부산YWCA 청소년프로그램으로써 Y-틴 재건의 방향성과 밑거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 #2014년도운영보고서참조</p>	<p>* 키다리학교가 곧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주는 방향성을 갖고 있음. * 키다리학교의 선순환 확인</p>
	<p>* 세종Y 대학Y 키다리학교를 차세대 리더십발굴을 목적으로 시범운영. ('평화통일과 차세대 리더십 양성'의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 8월에 세종YMCA등과 함께 진행한 평화캠프를 중심으로 운영) *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Y회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특성상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활동 * 대학 키다리학교는 격주로 꾸준히 활동하는 청소년 키다리와는 달리 관심 있는 이슈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했을 때, 관심도도 높고 프로그램 실현 가능했음.</p>	<p>* 대학Y: 정해진 이슈로 일련의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p>
	<p>* 참여자 수의 증가</p>	<p>* 2015년 청소년단체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 선정 * 키다리학교의 성장 확인</p>

		* 키다리학교 출신의 운영진 등장 (대전Y, 서울Y)	* 키다리학교의 선순환 확인
2016 - 2017	* 키다리학교 운영 실무진 중심으로 워크숍 진행(성공사례 나눔, 운영평가 등)	* 반복되는 운영실무진의 키다리학교 이해 어려움 호소	* 2012년 기준 모든 실무자와 운영진이 변경됨 * 운영나눔과 관련한 워크숍 이외의 키다리학교에 대한 신규교육이 매년 필요함을 확인
2018 - 2019	* 키다리학교 이해를 위한 신규 워크숍 진행	* 키다리학교 이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받으며 진행 #2018설문	* 키다리학교 신규 교육의 실효성 확인
		* 연속으로 키다리학교를 운영한 회원Y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의 원활한 진행 * 신규 회원Y의 청소년 '주체성'에 대한 어려움 호소 #2018년 설문	* 신규 키다리학교 회원 * 신규 키다리학교 운영진 * '주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 활동이 진행되어야함을 다시 확인
		* 키다리학교로 인한 YWCA의 청소년운동 활성화 (기존의 구조로 Y-틴 운영이 어려운 회원Y가 청소년 활동을 시작 - 거제, 군산, 평택 등/ 이중 거제와 군산은 Y-틴 활동으로 확장되었음)	* 키다리학교의 선순환 확인 (키다리학교->YWCA청소년 운동)
		* 키다리 청소년들의 진로 변화 확인 * 회원Y 다수가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 진로 변경에 영향을 끼쳤다 답변 (부산Y 18살 키다리의 경우 전학을 가기도함) #2018년설문	* 다년의 키다리 경험 * 키다리 선순환 확인 (키다리학교->청소년 진로)
		* 키다리 출신 운영진의 지속적 등장(성남Y) #2018년설문	* 키다리 선순환 재확인
	* 회원Y 키다리 연대모임 확대 요청. 설문을 통하여 전국, 4부 지역 단위의 모임에서 아이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 #2018년설문	* 광역단위, 전국단위의 모임의 확대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다리지원금 확대 요청 #2018년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어난 인원 수 * 인원수에 비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회원Y 키다리학교 진행자 수 감소 * 회원Y 독립 프로그램의 키다리학교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신청자 수는 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Y별로 키다리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가장 인상 깊은 YWCA청소년운동'과 'YWCA청소년운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르게 답변) * 키다리학교의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키다리학교가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공통적으로 답변. #2019년사업목표, #2019년키다리학교비전워크숍모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다리학교 운영의 공통된 기반으로서의 '가치'설정 필요성 인지. * '주체성'과 관련하여, 그 가치를 키다리의 핵심 기반으로 단단히 세우는 추가 작업(홍보, 인식) 필요성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다리학교 출신 Y활동가가 계속해서 등장(Y의 성장 기반) -실무자: 세종Y 키다리실무자 -대학Y: 부산Y는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대학Y신설 #2021활동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다리학교의 선순환 재확인
2020 -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Y별 키다리학교 참여자의 감소, 모집의 어려움 * 다양한 어려움 등장: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 어려움, 활동 운영 방법의 이해 부족, 스케줄 조정상의 어려움 등(=키다리학교 초반부 발생하였던 어려움이 반복하여 발생/공통된 어려움은 아님. 회원Y별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다름) #제1차키다리실무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진행 * 연합회 실무자 부재로 인한 프로그램 생략과 축소 * 신규 키다리학교 운영진, 키다리 운영진의 빈번한 변화 * 청소년단체 학교생활기록부 중단(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키다리학교 실무자 교육 필요함을 인식. * 10년, 특히 20-22년도 회원Y의 키다리학교 담당 실무자가 계속하여 변경됨이 목격됨. 이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키다리학교가 진행되기 어려움 확인.
	<p>* 생기부 봉사활동 규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요청 #제1차 키다리실무자 회의</p>	<p>* 봉사활동 외, 청소년들이 키다리학교로 접근하게 하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 확인 * 10년간의 활동 보고를 확인하였을 때, 봉사활동의 생기부 기재는 키다리 모임 형성에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으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님(정책 변경 이후, 사실상 봉사활동과 관련한 피드백 사항은 없었으며, 앞 활동보고를 확인할 경우도 키다리학교의 의의는 봉사활동이 계기점이 되서 온 친구들이 그와 무관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임.) #2018 설문조사</p>

8.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키다리학교

여기서 키다리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어떤 기조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해보겠다.

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의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선제적 청소년 정책”으로 수립되었다. 문제 중심의 청소년 정책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한 포괄적 청소년 정책, 청소년 활동, 복지, 자립, 보호 등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정책을 추진한다는 균형적 청소년 정책 내용을 담고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 효과를 기대하며 수립되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이며,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의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필수 역량 함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권리 증진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복지와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및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였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목표인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목표와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 증진”이라는 목표는 YWCA키다리학교에서 강조하는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표와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 기본계획의 과제 영역에서 “청소년 주체성”과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역량 증진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이 강조되었고, 청소년단체활동 참여율, 청소년의 행복감 등이 주요 지표로 제시되었다. 당시 YWCA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봉사시간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키다리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얻었다.

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이라는 4대 정책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책목표와는 달리 2019년부터 대입의 투명성, 공정성이 화두가 되면서, 비교과 활동의 차단에 집중하는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의 개선을 발표한다. 결과적으로 비교과의 교과활동 연결고리가 상실되고 창의성 교육이 거부되며, 학생생활기록부에 교내 외 봉사활동 실적, 청소년 단체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 대부분의 내용을 미기재 사항으로 전환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은 포기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에는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 검증을 강화하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재금지 목록을 추가하여 단위학교 및 교육청별 검증을 강화하고 교원 처벌과 입학취소 등의 제재로 교육의 이름으로 다양성을 억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청소년단체활동을 학교에서 지역으로 거점을 바꾸기 위해 2021년부터 청소년단체지도교사 가산점 인정도 폐지하여 학교 중심의 청소년단체활동도 어렵다. 결국, 기형적인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없이, 청소년정책이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변화에만 끌려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사활동이나 청소년단체활동이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진학에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 YWCA키다리학교 참여의 하나의 혜택으로 여겨졌던 봉사활동 실적은 이제 아무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14세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법 개정 논의로부터 비롯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었고, 2022년 2월부터 시행한 “청년기본법”을 통해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계층”에게 집중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

이라는 전 세계적인 상황과 함께 청소년 단체 활동은 위축된 상태에서,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담고 있는 교과중심, 규제중심,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 청년계층으로의 관심 이동 등은 YWCA키다리학교와 같이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리더들을 양성하는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줄어들게 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과 여가부 폐지 정부 개편안

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기관들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¹⁸⁾으로 ‘청소년기본인권’을 확보하는 정책, 청소년정책 수행기관 간 주무부처의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과 환경의 다양성을 필수적으로 하고 최소 5년 이상 앞을 바라보며 미래 환경을 예측해내는 선결적 정책 전제 필요,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 통합과 융합, 청소년정책관련 예산 고도화 방안 탐색, 사업성과를 현장이 명확히 이해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전체성과가 정책으로 입안될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기관들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틀거리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기후·환경 위기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로·직업 체험 기회 확대, 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청소년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청소년정책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며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담고 있는 정부 개편안을 내세워 폐지를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추진체계가 없어지고, 각기 타 부처의 하위 정책들에 편입되거나 키워드마저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의 문제뿐 아니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3년 이후 청소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규제 중심, 인성 교육 외면의 교육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YWCA키다리학교는 현장에서 참가자 모집부터 힘겨운 행보를 걸어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초기 키다리학교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봉사 활동 시간이나 학생부 기재의 이점을 말하면서 키다리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하거나 그에 맞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입시위주의 피폐한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대안적인 교육운동으로 시작하였으며, 키다리에 온 친구들은 비전리더십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활동을 통해 팀리더십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실천활동을 통해 실천리더십을 지닌 YWCA다운 리더로 성장해나갔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에 오히려 무엇이 진정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YWCA키다

18) 여가부,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2. 5).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토론회-청소년 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평가 및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방향)-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함.

리학교를 통해 성장한 Y리더들이 YWCA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뒤를 따라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뛰어 들어야 한다.

9. 키다리학교에 있었던 것과 있어야했던 것

YWCA키다리학교 10년을 돌아보며, YWCA키다리학교에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YWCA목적과 가치이고, 셋째는 꾸준함이다. YWCA키다리학교의 키다리나 운영진은 모두 YWCA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끌고 밀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달리기 선수라도 목표점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듯이, Y리더들이 붙잡을 분명한 YWCA목적과 가치(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 건설)가 있었고, 이것이 공유되었으며, 추구되었다. YWCA목적과 가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든 것을 담아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100년을 이어온 YWCA목적과 가치는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는 지표가 되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YWCA키다리학교에는 꾸준함이 있었다.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11년간 YWCA키다리학교를 운영하는 회원Y가 꾸준하게 키다리친구들을 만났고, 연합회는 꾸준히 고민을 더해가고, 비록 적지만 예산 지원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사람을 찾고, 만남을 만들어갔다.

그런데, YWCA키다리학교가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의 삶에 다가가 키다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과 장소와 물품이 있었어야 했을까? 그렇지 않다. “Y다운 리더”로 명명된 “YWCA리더십”에 국한하지 말고, 초기에 정의한 리더십 정의에 머무르지 말고, 시대가 요청하는 더 깊고 넓은 “리더십 논의”를 이어가야 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함으로써 드러나는 ‘비전’은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지,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관계성’은 어떤 성격을 포함하는 것인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논의하는 장이 있었어야 했다.

전 연합회 담당 실무활동가인 천유란 팀장에게 키다리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었더니, 키다리 친구로 들어와 멋진 모습으로 성장한 한 사람의 키다리를 기억하고 그 키다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일을 새로 맡아 일하면서 이 포럼을 준비해온 이은혜 활동가는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리더십”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YWCA키다리학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름이 불리워진 키다리들을 포함해서 YWCA키다리학교를 거쳐 간 많은 키다리들과 운영진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야 했다. “당신은 YWCA키다리학교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왜 변화되었느냐? 당신의 리더십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고 “Y리더십”의 본질과 영향력을 묻고 밝혀내고 공유했어야 했다. 처음 YWCA리더십 승계에 관심을 두었던 그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100주년의 한국YWCA연합회와 회원 YWCA는 새로운 100년을 수평, 깨어있음, 도전, 변화로 이어갈 청년들을 주역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YWCA 100년의 여정에서도 김필레, 조아라, 박에스더와 같은 수많은 YWCA리더들이 함께 일해 왔고, 함께 성장해왔다. 이제, YWCA에 있는 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 함께 “Y리더십”을 이야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함께 공략할 목표가 있어야 했다. 함께 공략할 목표는 그것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과 자부심을 함께 느끼게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 YWCA키다리학교 뿐 아니라, Y-틴 활동, YWCA운동에서 항상 한계로 지적하는 것이 “다 담았지만 무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키다리 친구들 각자가 활동 주제와 방식을 정하더라도, 기본적인 필수 요소로 다루어야 할 청소년자신들의 문제 중 많은 것이 아닌 단 한 가지라도 함께 붙잡고, 11년간 21개 회원YWCA 키다리들 1,250여명과 300여명의 운영진이 함께 힘을 모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함께 이룬 성취를 “사람”에서도 찾고, “실천”에서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10년의 키다리학교를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실천에 몰입할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논의를 거듭할 “장”을 크고 넓게, 글로벌한 YWCA네트워크망을 잠재우지 말고 십분 활용하여 벌여야 할 것이다.

“상징”이 더 많았어야 했다. 키다리학교도 나름의 학교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상징”이 키다리학교 로고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운영진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상징”을 개발하는 하나의 행위였을 텐데, YWCA여서 “키다리아저씨”가 맞지 않다면 과감히 “키다리학교”를 바꾸는 작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상징을 스스로 만들고 공유해야 사회도 그것의 영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2012년 7월 키다리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심은 “키다리 나무”가 YWCA버들캠핑장 운동장 앞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다. 그렇게 10여년을 키다리는 나무처럼, 자라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온 것이리라. ‘나무’든 ‘민들레’든 디지털 시대의 아바타와 같은 그 무엇이든, “YWCA키다리학교”는 새로운 상징을 입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가며: ‘YWCA키다리학교’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작

그릇이 있다고 음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을지, 누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재료를 준비하여, 어떤 요리법으로,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누어 먹을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고, 구체적인 결정이 나면 행동은 빨라지게 된다. 아니, 어쩌면 음식을 먹을 사람들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아픈 상태라면, 음식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얼른 치료를 하는 것으로 바로 바꿀 것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YWCA키다리학교를 계속 해야 하는지, 이후의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들을 담아내기 어려워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주실 다른 발제자와 키다리 친구들에게 공을 넘겨본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YWCA키다리학교”는 “새로운 10년”을 향해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YWCA 청소년운동을 파헤쳐 보고, 연합회와 회원YWCA가 과연 새로운 100년의 YWCA로서도 “청소년운동”을 할 결심이 서 있는지 솔직히 들여다보고,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 아픔을 보듬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몇 가지 연구활동, 공유사업, 연대사업, 자원모으기 등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작의 단서를 적어보겠다. 앞에서 새롭게 YWCA리더십 연구를 시작한다면, 키다리학교 10년간 운영진, 키다리, 회원Y 관계자, 강사 등 함께했던 모든 분들을 모집단으로 100여명의 리더십연구를 해봄직하다. 한국YWCA 100년사 준비를 하면서 1,000명의 YWCA리더십연구를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유사업으로는 대대적인 키다리 동창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하철에 노오란 현수막을 모두 들고 사진을 찍은 “에OO” 합격자 동창 모임 광고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키다리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시절 YWCA키다리를 통해 성장한, 다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함께함의 동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연대활동으로는 대전Y 올빼미 대화모임과 여행 잇기 모임을 제안한다. 우리는 “회의”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여행”과 “함께 먹고 자는 공동체 모임”에서 가능함을 경험을 통해 안다. 짧은 호흡으로는 풀어 낼 수 없는 이야기, 나의 일상의 터전에서는 풀어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YWCA가 있는 지역 곳곳의 여행지에서, 밤새워 맛난 것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연대활동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장면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범주가 제한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상을 나누는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싶은 학교, 일터, 삶터, YWCA, 키다리학교의 목표까지 방향과 좌표를 찾는 이야기까지 나누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다리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원을 모으는 모임이 필요하다. “자원활동가”를 모으되, “진짜 자원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을 만나고, 함께하도록 권하고, “청소년아너스소사이어티”도 운영해보고, 곳곳에서 이런 소중한 청소년 운동에 동참하여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과 활동들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YWCA”가 “YWCA”로 존재하는 한, “Y-젊은”은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들을 의미하며, 과거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고 넓은 “A-연합”은 오늘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과 꾸준함,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늘 또 “키다리 나무”를 심자!

#Change

권 예 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년활동가

#청소년자치연구소_달그락달그락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나는 소리 ‘달그락’, 청소년의 움직임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소리 ‘달그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은 사회참여팀, 진로지원팀, 공유변화팀이 있으며, 달그락에서는 약 22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조직한 10개 이상의 자치기구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달그락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이 조직하고 구성하는 활동은 가능한 지양하고 있으며, ‘진짜 활동’만을 추구하고 진행한다. 달그락의 자치기구의 하나인 ‘청소년기자단 Aspect’는 새전북신문과 연계하여 매주 목요일 ‘달그락달그락 지면’을 구성하고 7여 년간 청소년 중심의 기사를 기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은 습작을 넘어 매년 책을 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 방송국 DYBS까지, 이렇게 모든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사회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청소년진로지원위원회, 청소년사회참여위원회, 달그락미디어위원회와 같은 5개의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조직’, 꿈청지기와 달청이서포터즈와같은 ‘자원지도자 조직’,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매달 힘을 모아주시는 ‘달그락지기 후원자’분들 모두가 청소년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계신다.

#달그락_안에서의_나

나는 이러한 자치공간 속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으로서 활동에 참여하였다. 각 연도별로 나의 활동 내용들을 정리해 봤을 때, 달그락 활동이 추구하는 나의 목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우선, 2018년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달그락에 무작정 찾아가 애니메이션 제작 자치기구 ‘오로라’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자치기구 대표까지 맡게 되었다. 자치기구 대표를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활동도 많이 참여

하게 되었다. 연합회 활동 중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계기가 되었던 활동은 청소년 정책제안활동인 ‘청소년참여포럼’이다. 문화분과 부분과장을 맡아서 시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을 만나면서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모든 과정이 나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4기 대표자회 ‘TITLE’ 부회장을 맡게 되어 우리 기관의 법인인 들꽃청소년세상의 전북지부 청소년대표로 네팔 해외교류활동을 다녀오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삶은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남도 이해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얻게 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 같은 좋은 변화들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달그락달그락 대표자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5기 대표자회 ‘뚝뚝’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반년 동안 달그락 활동이 모두 정지된 상태였고,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리더라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들을 이끌어야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감까지 느꼈다. 그러나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전에 미리 구축되어있던 미디어방송시스템을 토대로 비대면 회의 등을 활성화시켜 또 한 번 역경을 딛고 일어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2021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동생, 후배들에게 스스로 달그락에서 쌓아온 것들을 전달 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달그락 속에서 대부분의 활동의 주도권을 동생들에게 넘기기 시작하였다. 간사 선생님들께서 나를 믿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셨던 것 같이 나도 동생들을 믿고 일의 권한을 넘기며, 동생들이 스스로 역경을 딛고 일어나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랐다. 나보다 조금은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빠르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 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팁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동생들에게 자료를 넘기기 위해 나의 지난 4년간의 변화의 기록들을 정리하다보니 내가 한 뼘 더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_존재_이유

달그락에서의 기록들을 보다보면 매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변화’이다. 이는 달그락의 존재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같다. 변화 중에서도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진행한 ‘청소년 개개인의 변화’와 ‘주변 환경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에게 1년간 활동해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변화와 관련된 글들을 모아 연말에 서

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행사인 ‘달달파티’ 때 책자로 만들어 위원님들과 후원자 분들께 나눠드리곤 한다. 이런 청소년들의 변화 이야기가 담겨있는 글들을 보면 개인의 변화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다.

“저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인데 적극적인 사람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러한 청소년들 개인의 주체성 강화 이외에도 참여 수준의 향상과 자신감의 향상, 글쓰기와 소통하며 관계하는 능력의 강화, 달그락 방송 · 달달파티 등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 · 친밀감 증대 등이 있다. 또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향상을 위한 조례 구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정책의 반영 등이 있다.

많은 분들이 달그락에 찾아와서(혹은 연락해서) 달그락의 ‘성공’ 요인에 대해 묻는다. 우리에게 ‘성공’이란 실적과 같은 단순한 산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 공동체,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성공으로 간주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달그락의 성공요인을 꼽으라면 5가지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우선 첫째, 명확한 미션과 비전이 존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청소년들 옆에서 함께 활동해 가고 이끌어가는 활동가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이 초반에 설정한 미션과 비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활성(활동과 성과)글을 통해 확인한다. 두 번째, 미션과 비전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하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청소년들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성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형식적인 활동을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형식적인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 위주로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생명과 공생,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달그락에서는 정책제안 시 환경이나 기후위기를 고려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환경관련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제안하고_싶은_몇_가지

4년간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으로 활동하다보니 다른 지역의 다른 청소년기관 친구들을 만났던 경험이 많이 있다. 청소년 기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친구들의 유형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적어도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달그락에서 변화한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이던 기관도 있었고, 반대로 자신이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달그락에선 당연하게 나타났던 변화들을 겪지 않은 청소년들이 주류인 기관도 있었다. 나는 이것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고, 이번 강연 준비를 하며 우리기관 사무국장이신 오성우국장님께서 참고하라고 건네주

신 자료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이 주도하되 이들을 지지하는 비청소년(전문가, 활동가)와 함께하는 것(청소년의 주체성, 주도성)을 기억하기
- 개인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동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을 무조건 진행하기
- 청소년과 진성, 진심으로 관계하고, 소통하기
- 이벤트적인 활동을 지양, 연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가 필요
- 지역과 마을에 대한 구체적 학습 필요. 이를 위해 동종 업계와의 네트워크나 활동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 및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요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관계하며 기여(공동체성의 향상)
- 개발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시의회 등과 유기적 관계와 연재 필수, 적대적일 필요가 없음.

#끝맺음

유튜브에 ‘청소년자치연구소’를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는 ‘2019 청소년자치연구소 소개영상’이 나오는데, 영상 속에서 우리 기관의 소장인 정건희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저는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참여하고 생명과 공생, 공존하는 것을 ‘청소년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이웃들과 함께 행하는 모든 활동을 자치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이 존재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이다.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청소년관련 조례 제정 등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 청소년 개개인의 변화와 여러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달그락은 이를 위해 이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공하면서 꾸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매일 일하면서 믿는 것들
실험과 기획, 디테일이 건네는 것

엄 윤 미
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



도서문화재단 씨앗

200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재단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은 물론, 특정 주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사업을 기획, 추진, 지원합니다.

Vision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 없이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고 확장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Mission

도서관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복돋우는 공공의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 콘텐츠, 운영의 상을 사회적으로 제안하여 도서관의 변화를 촉매한다

주요 사업

실험적 공간 운영

라이브러리 티티섬 (성남)

※ 스토리 스튜디오 (혜화)

※ 스토리 라이브러리 (혜화)

공간의 설립 및 확산

※ Space T

어린이 작업실 '모아'

도서관과 콘텐츠 지원

느티나무 도서관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헬로우유지움 - 그림책 작은 도서관 Labo

피치마켓 - 라이브러리 피치

에누마 - 두루책방

세상을 품은 아이들 - Second Chance Library

기적의 도서관 설계비 지원

학교, 교사 기반의 프로그램

책독

어린이, 청소년 X 도서관 X 콘텐츠

공간, 콘텐츠, 사람, 경험, 운영원칙

기금 지원, 기획, PM, 운영지원, 직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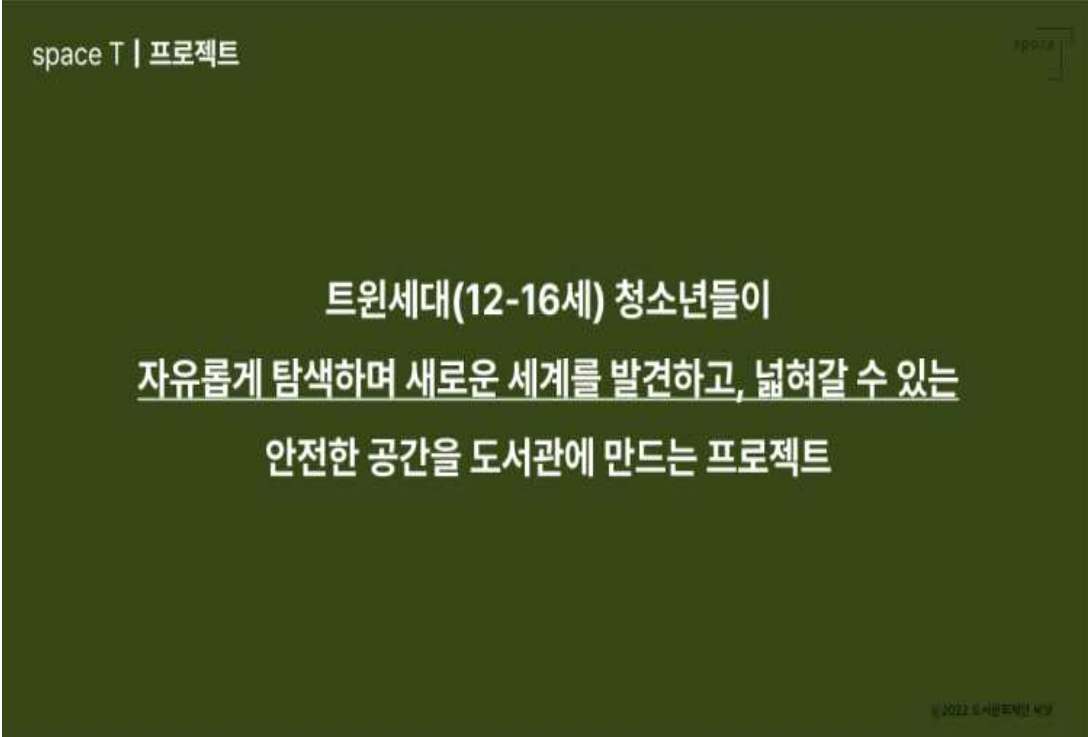
space T | 시작 배경

트윈세대 (12-16세)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낯 세대(10대 초반)를 일컫는 말
(10대: Teenager + 사이: betWEEN)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취향을 갖기 시작하는
또래가 중요해지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하는,
전환기(Transition)

© 2022 도서관위원회 비영



space T | 프로젝트

트윈세대(12-16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탐색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넓혀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도서관에 만드는 프로젝트

© 2022 도서관위원회 비영

space T | 10가지 원칙

공간

시각적 요건 | 물리적으로 밝고 쾌적하며 안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
 경험적 요건 | 다양한 자세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구조와 구성 | 분리되기 보다 **다양한 경험 사이 넘나들이 가능하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콘텐츠

구성 | 책, 영상, 음반, 재료, 도구 등 (책 외의) **다양한 탐색과 작업의 재료가 제공되는 공간**
 범위 | 청소년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되, **낮설고 새로운 것까지 접할 수 있도록 경험과 콘텐츠가 제공되는 공간**
 연결 | **포레와의 만남**을 넘어 다양한 경험과 삶의 태도를 전할 수 있는 **제3의 어른들과의 연결**이 제공되는 곳
 진화 가능성 | 사용자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업데이트되는 공간**

운영

전용 공간 |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운영**
 운영 원칙 |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전감과 자유로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꾸준히 시도하고 변화하는 공간
 운영자 | 한대하고 세심하게 지켜보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운영자 팀이 상주하며 안정적으로 운영**

©2022 도서관재단 씨앗

space T | 원칙 : 핵심경험과 콘텐츠

경험이란 | **이용자와 공간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용자가 얻게 되는 가치**
 space T의 경험이란 | **트윈세대들이 이 공간에 왔을 때의 기대 되는 경험**
 space T의 경험의 지향점은 | **4가지의 경험을 균형 있게 제공하며 특히 낯선 경험을 촉진**

space T 프로젝트의 4가지 핵심 경험

쉽

“일상과 떨어진,
채워나갈 여백을 만드는
경험 사이 쉽가 되는”

만남
소통

“친구와
생각과 취향을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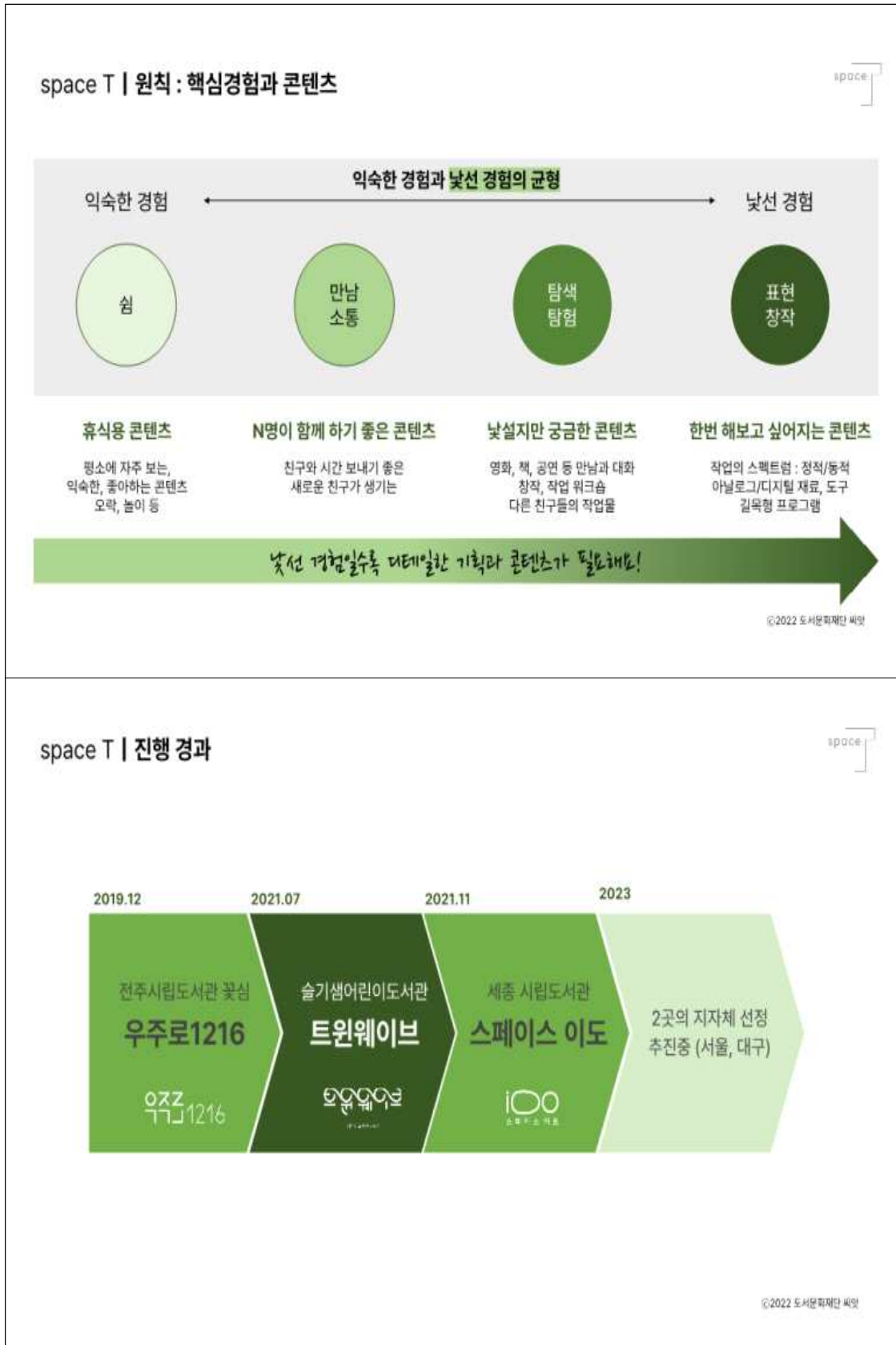
탐색
탐험

“나를 발견하고,
세상에 관심 가지며,
호기심과 상상력이 커지는”

표현
창작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상상을 구현하는”

©2022 도서관재단 씨앗





space T | 우주로 1216 이용자 조사: 우주로1216을 어떻게 느낄까? space T

“우주로에 온 이후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에 더 몰입하게 됐어요.**
365일 머릿속에서 캐릭터 도면을 상상하고 만들어요.” - 중1 이용자

“박스 만들기는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제 손재주를 알았어요.** 전시된 걸 볼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 중1 이용자

“**여기에 있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편안해져요.**” - 중3 이용자

“전에는 친구랑 집에서 라면 끓여 먹거나 핸드폰 게임했는데 지금 우주로에서는 할 수 있는게 더 많아요.” - 중1 이용자

“주말에 뭐하고 나가 놀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놀 여기로 와요.**” - 초6 이용자

“여기 이름이 우주로 1216이잖아요. 진짜 우주에 와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중1 이용자

“**뭘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로워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어디 가려고 하면 힘들고 초등학생이라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 초6 이용자

“**우주로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서 딱히 할 게 없었는데 할 게 생겨서 좋아요.” - 중2 이용자

출처: space T 천주 시립도서관 우주로1216 인맥트 보고서 (2022) ©2022 도서관재단 041

space T | 우주로 1216 이용자 조사: 우주로1216을 어떻게 느낄까? space T

“같은 또래들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걸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놀게 되는 것 같아요.**” - 초6 이용자

“**건전하고 서로 배울 수 있고 안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 중1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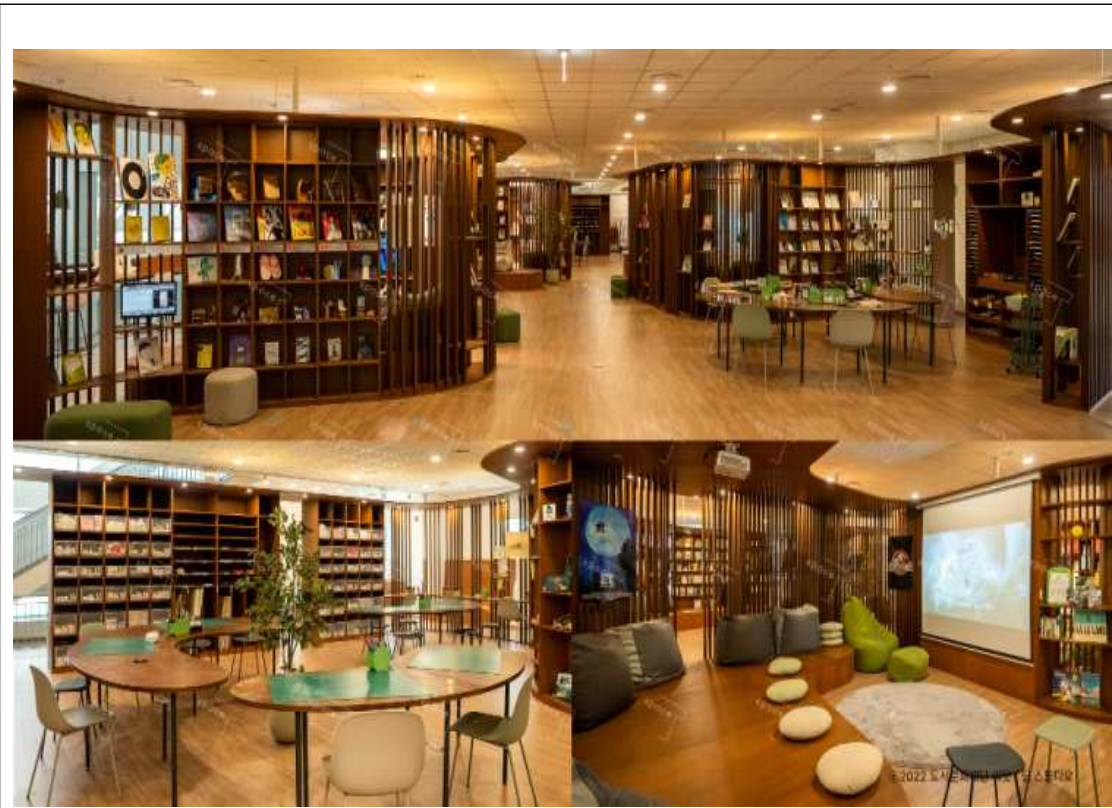
“우주로는 만남의 장이에요.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 중1 이용자

“학교 상담 선생님은 ‘친구랑 싸웠으면 화해할 해야지’ 같은 식인데 여기 선생님들은 위로를 먼저 해주세요.
친구처럼 언니처럼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예요.” - 중3 이용자

“보통 어른들은 다가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은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 중3 이용자

“여기서는 뭘 만들든지 잘 만들었다,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제가 만든 것에 대해서 존중받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 중1 이용자

출처: space T 천주 시립도서관 우주로1216 인맥트 보고서 (2022) ©2022 도서관재단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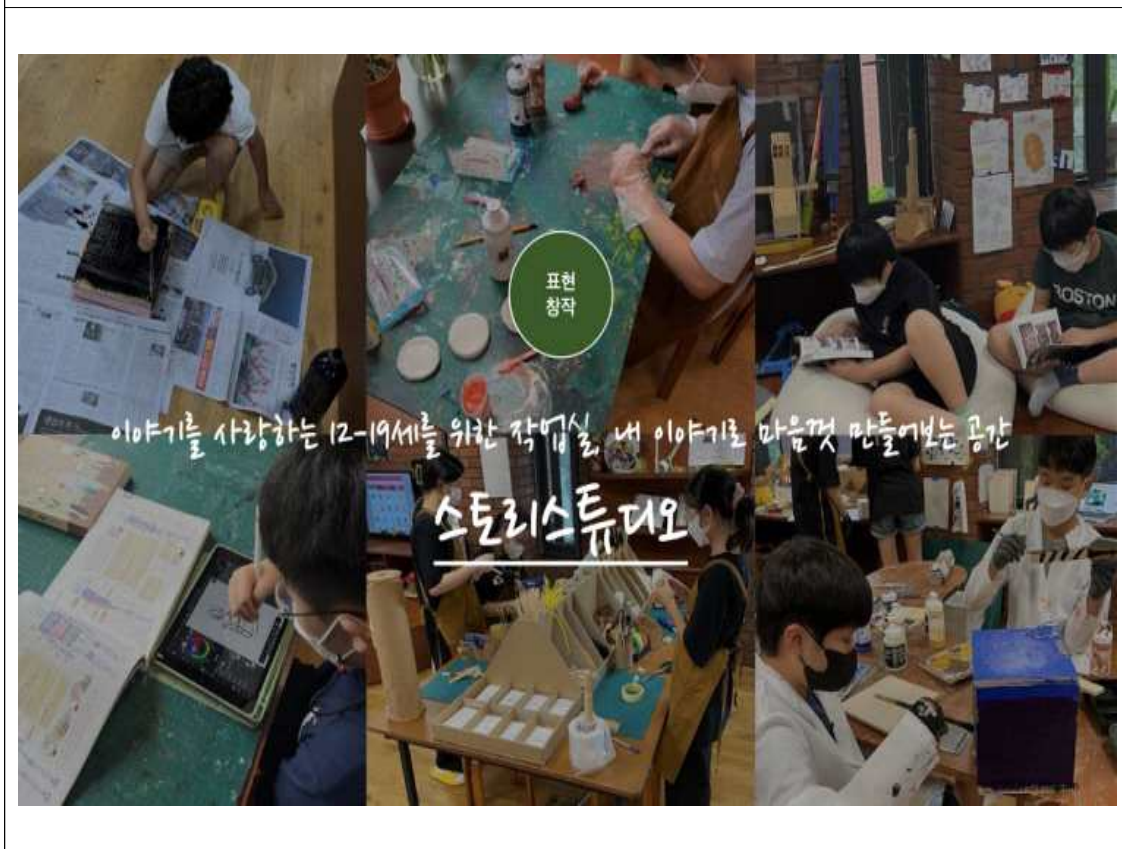


스토리 스튜디오, 스토리 라이브러리: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를 실험합니다

12-19세 누구나 '내 이야기를 쌓는 제3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개의 콘텐츠 실험실을 운영합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12-19세를 위한 표현과 탐색의 공간
스토리 스튜디오, 스토리 라이브러리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만나고 이야기를 만드는

영감이나 휴식이 필요할 땐, 멀티포맷 콘텐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다양한 재료, 도구, 기기, 장비

#드로잉 #만들기 #영상 #사진 #음악 #게임 #글



내 이야기가 책이 되는, 스토리라이브러리

책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스스로 책을 고르고 원하는 이야기로 책을 만드는

8가지 주제 서가
해보고 싶어지는 동사 서가
책을 만나는 탐색형 작업
다양한 아날로그 재료, 도구





우리가 믿는 것들

성장의 과정에서 탐색과 만남, 연결, 표현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경험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

도서관이 다양한 경험의 재료와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의 거실이 될 수 있다는 것

낮선 경험을 제안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디테일한 기획, 다양한 콘텐츠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

모든 기획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아주 열심히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원칙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



너의 스토리로 세계 속으로

김 대 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청소년들이 관심사에 쏠려서 움직이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청소년들이) 준비하도록 하고,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도록 하고, 아직 발명이 되지도 않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준비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관점과 세계관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감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성과 모두의 복지를 향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미래의 어른들, 즉 청소년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요?” -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웹사이트

비전 공유

키다리 학교에서 품고 있는 “Y다운 리더”에 대해 함께 하는 우리는 각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Y다운 리더

- 내면의 문제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앞에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청년 리더
- 공동체의식과 시민성을 가지고 자기 진로와 미래 설계를 하는 청년 리더
- 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리더

키다리학교는

“영, 지, 체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비전리더십, 팀리더십, 실천리더십이라는 요소로 구성된 키다리리더십 교육과정”

“키다리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치와 실천”

“키다리학교에서는 교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활동에 참여하는 키다리들과 운영에 참여하는 키다리 리더들이 모두 키다리학교의 배움의 주체이다. 키다리학교에서는 참여하는 키다리들과 지원하는 키다리 리더들이 교육목표, 과정, 활동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간다.”

돌아보기 Reflection

2012년 전국에서 4개의 키다리 학교로 시작해서, 10년간 누적된 키다리 학교의 숫자는 무려 98개. 토요학교로 열렸던 키다리 학교를 거쳐 간 학생들의 숫자도 어마 어마할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키다리 학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10년 전 청소년이던 키다리들은 이제 20대의 청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키다리학교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며 마련되었던 TF회의 자료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이슈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정해진 틀 없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됨. 이는 참여자와 운영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운영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2012-2013)
운영 연차별, 특히 신규 운영진 교체에 따른 회원Y 별 프로그램 차이가 나타남.->키다리학교 운영은 최소 3년 이상 지속해야 할 필요 시사 (2014-2015)
키다리학교 출신의 운영진이 나타남(대전Y, 서울Y): 회원Y 리더십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남
2012년 초기 기준 모든 회원Y의 실무담당자와 운영진이 변경됨. 이에 따른 회원Y 실무담당자의 키다리학교 이해가 필요한 상황(2016-2017)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 필요 청소년회원 모집, 청소년활동 변화, 현 청소년이슈에 적합한 방향 제시 필요 (2020-2021)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이슈들에서 비교적 가장 자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키다리학교가 잘 운영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

사람들이 서로 간에 관계를 이루고,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연구한 자료에서 코로나를 보낸 청소년들의 내적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 “회복탄력성,” “낙관성”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협력할 수 있는 스킬이 2019년-2020년 청소년들은 -14%의 성장률을, 밀레니얼 세대는 -3%라는 결과가 나왔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들은 -15%, 밀레니얼 세대들은 -9%, “회복탄력성”은 청소년들은 -4%, 밀레니얼 세대는 -8%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전체 연령에 있어 최하위의 기록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들이라는 힘든 현실을 보여 줍니다.

키다리학교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이 세대들 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어째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짐작이 됩니다.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소개: Narrative 4

학생들 간에, 학생과 교사들 간에, 나아가 다양한 사회 그룹들 간에 서로에 대한 공감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스토리텔링”이라는 도구를 교육하고 있는 N4를 소개합니다.

내러티브 4 Narrative 4 (이하 N4)는 우리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 학교의 문화도 변화시켰습니다. 징계를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줄었고, 졸업률은 증가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힘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스토리에 내재된 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 뉴욕 브롱스 지역의 유니버시티 하이츠 고등학교 헤이젤 조셉-로스보로 교장

N4의 현재 규모

미국에서는 18개 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4대륙 16개 국가에서 N4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N4의 결과

- 공감력 및 상호 이해를 키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이 향상된다.
- 관계를 잇는 다리를 세우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장벽을 허문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게 되는 연습을 한다.
- 참여하는 시민성을 키우고, 격려하는 학습 분위기를 촉진한다.

N4 트레이닝의 구성

키다리 선생님 및 키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른들이 N4 퍼실리테이터 연수를 받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연수는 스토리텔링을 3회 이수하고, 퍼실리테이터 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나의 키다리 이야기

이 채 은
(사)부산YWCA 키다리 청소년

키다리학교 10주년을 맞이해 주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가 키다리학교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고 배우게 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추천으로 YWCA를 접하게 되어 키다리 학교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키다리 학교를 접했을 때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회의와 활동을 거쳐 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키다리학교는 단순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며 필요한 여러 것들을 배우는 데에 있어 유익한 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내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에서부터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실천하며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 주제였던 환경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문제를 자각하고 실생활 속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Y틴이 주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토의하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비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되돌리는 데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실천 방안 중 플로깅을 진행하여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와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제 일상 생활 속 생각해 보지 않았던 습관들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통해 친환경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를 공유하는 친환경 일기를 진행하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실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지역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매달 주제를 선정하며 진행했던 회의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며 우리의 활동이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봄으로써 Y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기업 더하여 국가가 친환경을 추구해야하

는 까닭을 알고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참여하며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에 참여해보기도 했고 리더가 되어 지역 Y를 이끌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 활동을 할 때 리더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을 비판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단체를 이끌어 가는 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Y틴들과 만나 활동하고 회의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키다리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심했던 이전과 달리 나서서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외된 친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올바른 리더십을 통해 학급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다리 학교에서 스스로 발표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발표자가 되어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본 탓에 걱정도 많고 서툴기도 해서 간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발표자가 청중에게 바라는 자세를 생각해 보며 제가 청중의 역할이 되었을 때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가 주도하여 의견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키다리 학교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교내의 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전하고 학급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여러 친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실수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키다리학교에서 접한 것들을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 않고 개선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으로 삼아 학생으로서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자 하며 실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를 소중히 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활동을 하며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키다리학교에서 했던 여러 활동들과 이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키다리 활동을 하며 배웠던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3년 동안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Y틴 활동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키다리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홍다운
(사)순천YWCA 키다리 졸업생

나의 '키다리학교'

송 소 연
(사)청주YWCA 키다리 졸업생

1. 들어가며

키다리학교 시작으로 YWCA와 인연을 맺었다. 나도 어느덧 활동한 지 10년이 되었다. 키다리학교 10주년 행사에 나의 이야기를 공유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다. 키다리학교 당시 활동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기에 추측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될 듯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고민했고, 10년 동안 키다리학교를 시작으로 경험했던 YWCA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단순히 개인의 활동 경험일 뿐이지만, Y활동을 통해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학습했다. 청주 지역을 거쳐 전국Y 그리고 세계Y와 소통하고 활동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며, 키다리학교 청소년들의 세상도 Y를 통해 더욱 넓어지기를 바란다.

2. 키다리학교 활동 이야기

활동할 당시, 키다리학교는 처음 만들어진 프로젝트였기에 명확한 활동 주제가 없었다. 환경, 청소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도 보고 강의도 들으며 앞으로의 활동 범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키우자 Y다운 리더'의 준말인 '키다리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청소년들은 주체자보다는 객체자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였을 뿐이다. 하지만, 청주대학청년YWCA 활동 당시에 본 키다리학교 청소년들은 주제 선정은 물론, 활동 기획까지 주체적으로 진행했다. 주체적인 여러분의 모습이 건강해보였다. 더욱 성장한 키다리학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키다리학교 활동 후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대학생 멘토들이었다. 사춘기가 절정에 달한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그런 상황에서 적응을 도와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대학생 멘토들이었다. 그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좋게 남아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대학생 멘토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도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갔으면 합니다.

3. 키다리학교 이후 이어진 YWCA 활동

3-1. 청주YWCA 활동

키다리학교 활동 이후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YWCA와 인연을 맺어오다가 대학생이 되어 대학청년YWCA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키다리학교 활동하며 배웠던 자신감과 당시의 따뜻한 느낌을 기억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청주대학청년Y는 일참청,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키다리학교 활동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Y는 청소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 안에서 청주대학청년Y는 마음껏 뛰어놀았다.

처음 활동을 했던 건 키다리학교 멘토였다. 키다리학교 활동했던 당시 대학생 멘토처럼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 컸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고 같이 참여하여 놀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청년Y 대학생 멘토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활동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하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소년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단순히 봉사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싶었고, 멘토-멘티를 넘어서 '누나, 언니'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었다. 키다리학교 멘토로서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어 우리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 활동이 오래 유지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키다리학교 청소년들과 대학청년Y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청주 대학·청년Y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일참청' 이름으로 청주청년잡지를 제작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사업이다. YWCA연합회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을 신청해 진행한 사업으로, 펀딩에 대한 강의도 듣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해가며 진행했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컸다. 펀딩을 성공하고 남은 수익은 장애인단체에 기부해 의미를 담아보기도 했다. 잡지 제작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다. '일참청' 이름을 건 잡지를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해본 것이다. Y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다. 이처럼 Y는 하고 싶은 활동이나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Y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청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험하고 시도해볼 수 있었다. 대학청년Y에서 활동하라는 건 아니다. 키다리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활동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많이 도전하고 시도했으면 좋겠다.

3-2. 전국YWCA 활동

YWCA의 강점 중 하나는 전국 조직이고 세계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대학청년YWCA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소통했다. 특히 중부지역 대학청년Y는 청주와 대전, 단 2곳이었기에 관계가 더욱 깊었다. 우리는 공정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년에 1-2번 정도 여행을 다녔다. 텀블러는 필수

였고, 쓰레기는 제로였다. 팀을 나눠 쓰레기 배출 정도에 따라 설거지 내기 등 경쟁을 통한 놀이도 흥미로웠다. 의미 있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미였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키다리학교 청소년들도 타 지역 청소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다. 서로의 활동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YWCA는 세계적인 조직이다. 한일청(소)년 YWCA 활동, AISA YWCA 회의 그리고 UN 여성지위위원회의 등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YWCA 활동가들을 만났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동시에 같은 활동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더불어 각 나라의 여성 인권에 대한 실상을 들으며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접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YWCA 활동은 지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내 세상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였고, 많은 청소년, 청년Y 활동가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란다.

4. 나가며

키다리학교 활동에 대한 성장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대학청년YWCA 활동에 대한 성장 경험으로 주제가 바뀐 듯하다. 하지만 대학청년Y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키다리학교에서의 경험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을 배웠고, 사회 현상에 대해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을 학습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

YWCA에서 나는 주체적이었다. Y는 내가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울타리였다. 뜻이 맞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른들도 있었다.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Y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Y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사람이다. 키다리학교 활동 당시 멘토였던 대학생은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Y에서 친해진 친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에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도 Y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Y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갑다. 여러분도 꾸준히 Y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다. 긴 발표 들어줘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

크쌔도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Y-Place

오 대 근

(사)대전YWCA,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팀장

키다리학교는 처음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당황스러운 회원조직이다. 그나마 Y-틴 출신이니 잘 할 수 있을 거라며 키다리학교를 담당하라고 했을 때 당황하였던 기억이 난다. Y 다운 리더를 키우는 학교라니, Y-틴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도 Y-틴은 중점주제라도 있지만 키다리학교는 주제도 활동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선임 간사님은 70여 페이지 되는 매뉴얼을 읽어보라고 하지만 내용도 너무 많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처음 키다리학교 청소년들과 만나서 한 일은 활동 주제를 선정하는 회의였다. 시작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뒤에 앉아서 키다리학교 친구들이 나의 눈치를 볼 때 '잘하고 있다.'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끝이었다. 점차 회의에 들어가면서 청소년들이 실현 가능 어려운 활동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회의에 참여하여 감 놈라 배 놈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어느 순간 청소년들의 활동이 아니라 나의 활동이 되어있었다. 차 년도 에는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2년 차 담당을 하면서 다양한 툴(Tool)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다. 회의 전에 하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도 서로의 어색함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퍼실리테이션 기법들을 활용하였다.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교육, 워크숍에만 가더라도 전지, 포스트잇, 다이어그램 등 방법들을 키다리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나의 역할은 중심을 잡고 모임을 중재해주는 퍼실리테이터가 되었다. 나의 의견은 안 들어가고 처음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였던 키다리들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제를 제시한 청소년들에게 키다리학교의 3가지 리더 상인 비전, 실천, 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뒷받침 자료로 제시하라고 하였더니 활동 내용까지 한 번에 해결되었다.

전국연대모임, 지역 연대모임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전YWCA 키다리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키다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니 밤을 세면서 놀고 싶다고 하였다. 매일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하루 정도는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고 싶다고 하였다. 매뉴얼의 필수 과정을 반나절로 축약해서 운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다. “지”의 ‘Y 다운 리더 워크숍’에 “영”의 ‘놀이 활동’, “체”의 ‘신체활동’을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올빼미」¹⁹⁾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 첫 회에 키다리 친구들과 단순하게 “지”의 프로그램은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활동 기획 회의로, “영”은 놀이니까 레크리에이션을, “체”는 신체활동이니 YWCA주변에 보문산을 등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평가회의²⁰⁾를 통해 많은 내용 들을 변화하며 올빼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평가 회의와 하반기 활동 기획 회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비전 리더십을 강화하여 YWCA와 키다리학교, 선배와의 만남, 토론 활동, 나에게 키다리학교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키다리학교에 열광하는 이유는 학교와는 다르게 일상 친구들과하고 노는 것과 다른 플러스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눌 수 있는 중간 점검 기회, 서로의 생각을 들을 기회, 인터넷 게임이 아닌 만나서 노는 활동들이 있다는 점이다. 꼭 올빼미 활동만이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지역 키다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항상 올빼미 활동을 하면서 키다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나에게 키다리학교란?” 그때마다 나는 제발 ‘봉사활동’만 나오지 말아라! 라는 기도를 한다. 대전 키다리학교 친구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곳, 즐거움을 주는 곳, 진정한 나를 찾는 곳, 만남의 장소, 올해 잘한 선택 중에 하나, 스마트폰처럼 필요한 곳, 추억이 있는 곳, 리더십이 크는 곳 등 진짜 학교라는 장소(Place)로 이야기한다. 나도 키썸, 크썸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키다리학교를 운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곳”이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안될 것 같은 활동을 키다리 친구들과 만들어 내면서 나 또한 성장하고 있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 또한 키다리학교라고 생각한다.

이제 10년을 넘어 나아가는 키다리, 키썸, 크썸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키다리학교는 무엇인가요?”

19) 그 당시 전국 키다리학교 운영진들이 모두 있는 네이버 밴드(SNS)에 “대전에서 올빼미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당시 담당 국장이셨던 박은실 국장님이 ‘세상의 모든(all) 폭력, 생명, 위협은 빼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美)을 더하는 우리들의 활동’이라는 뜻을 제시해주셔서 그 이후로 올빼미프로그램의 세부 주제로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 변화된 부분 운영시간 토요일 학교 자습이 있는 키다리 회원으로 아침 7시 해산, 프로그램 내용은 밤새고 등산은 무리라고 하여 신체활동(팀 리더십)을 움직이는 단체게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YWCA 키다리학교 소개

1. 키다리학교 소개

1) 키다리학교 기획 배경

한국YWCA는 기존 공교육에서 청소년들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YWCA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일회적 성향이 강한 행사 중심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YWCA청소년 활동으로는 청소년들이 YWCA가 지향하는 'Y다운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키다리학교는 기존의 활동에 비교하여 보다 지속적이면서 청소년 주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YWCA청소년 활동의 목적, 내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정된 열린 학교이다. 키다리학교는 <키우자 Y다운, 리더!>의 준말로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배경으로 'YWCA 청소년 키다리학교'를 기획하게 되었다.

Y다운 리더

- 내면의 문제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앞에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청년 리더
- 공동체의식과 시민성을 가지고 자기 진로와 미래 설계를 하는 청년 리더
- 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리더

2) 키다리학교란?

키다리학교란 YWCA에서 운영하는 토요일안학교이다. 영, 지, 체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비전리더십, 팀리더십, 실천리더십이라는 요소로 구성된 키다리리더십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YWCA청소년 회원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다. 키다리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치와 실천이다. 키다리학교의 교육과정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결정된다. 교육장소도 스스로 결정한다. YWCA회관이나 특정한 교실 외에도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키다리학교에서는 교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활동에 참여하는 키다리들과 운영에 참여하는 키다리 리더들이 모두 키다리학교의 배움의 주체이다. 키다리학교에서는 참여하는 키다리들과 지원하는 키다리 리더들이 교육 목표, 과정, 활동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간다.

3) 연간일정

- 키다리학교 활동 : 3월 ~ 익년 2월 (연 20회 이상)
- 3월 : 키다리 모집, 1차 키다리 운영진 워크숍(연합회)
- 7~8월 : 키다리학교 연대캠프
- 익년 2월 :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연합회)

4) 기본운영

-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활동 주제와 계획에 따라 연 20회 이상 운영
- 필수과정 운영: 영(놀이활동), 지(Y다운리더 워크숍), 체(신체활동) 활동 고려
Y다운리더 워크숍: 비전리더십, 팀 리더십, 실천 리더십
- 선택과정 운영: 정의, 평화, 생명의 세 측면을 고려한 키다리 스스로 정한 주제로 운영

5) 지역별 연대운영

- 키다리운영진 워크숍: 지역별로 연대하여 키다리학교 진행상황 공유, 피드백 제안 및 도서연구, 대안교육 연구 활동 등을 진행
- 키다리 연대 캠프: 키다리모임을 통해 한국YWCA의 키다리 소속감 증진과 새로운 모임을 통해 키다리학교의 모임의 역동성 부여

6) 2022년 키다리학교 운영 현황

회원Y	활동 주제
대전Y	키다리학교_Deadline : 청소년과 환경
목포Y	소년심판(부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환경운동에 대한 심판)
부산Y	그린컴트루(GREEN COME TRUE) : 기후위기&환경운동
세종Y	세종YWCA 키다리학교 : 청소년 행복권
순천Y	그린컴트루(GREEN COME TRUE) : 기후위기&환경운동
창원Y	키우자 Y다운 리더! : 평화감수성 빌드업
청주Y	세상을 바꾸는 키다리 : 기후위기와 환경

7) 키다리학교 운영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개	6개	9개	11개	14개	14개	17개	8개	8개	7개	7개
회 원 Y	고양 서울 안양 청주	고양 광주 대전 서울 안양 청주	고양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안양 청주 평택	고양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성남 안양 창원 청주 충주 하남	고양 광주 동해 대전 부산 서울 성남 순천 안양 창원 청주 충주 평택 하남	거제 고양 고양 군산 동해 대전 부산 서울 성남 순천 안양 익산 창원 천안 청주	거제 고양 군산 동해 대전 마산 부산 서울 성남 세종 순천 안양 익산 창원 천안 청주 평택	거제 대전 부산 서울 성남 순천 창원 청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순천 창원 청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순천 창원 청주	대전 목포 부산 세종 순천 청주

- 거제, 고양, 군산, 광주, 동해,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성남, 세종, 순천, 안양, 익산, 창원, 천안, 청주, 충주, 평택, 하남 (21개 Y)

2. YWCA와 YWCA 청소년운동 소개

1) YWCA 운동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청년·여성·기독교·회원·국제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WCA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109개국에 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에 창립되어 뜨거운 청년정신과 사랑과 존중의 기독교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국 52개 지역에서 8만 회원과 함께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이 땅에 여성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청소년운동 뿐만 아니라 탈핵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탈핵 캠페인과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과 에너지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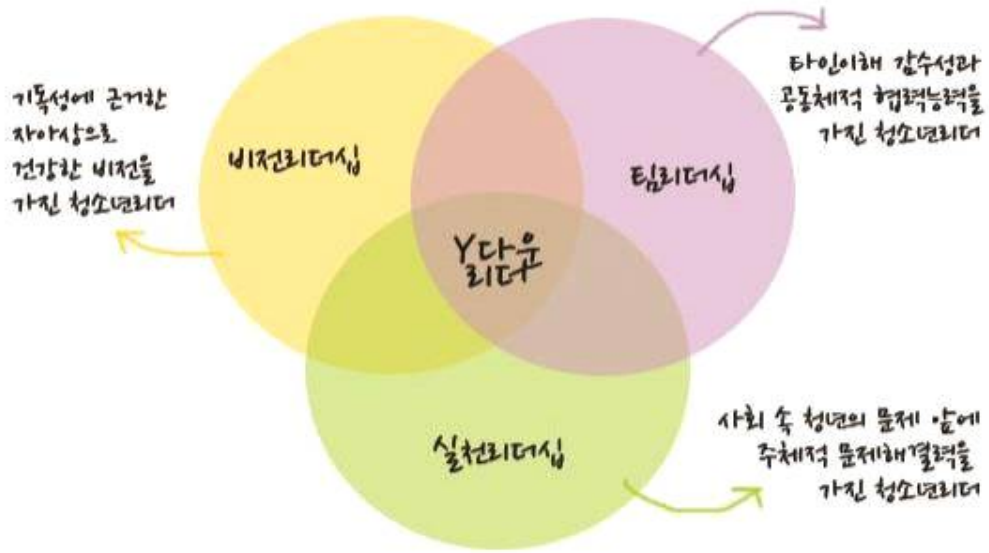
런 국가정책의 개선 제안 등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사회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운동과 성평등운동, 돌봄 노동권의 확보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역YWCA 현황

2) YWCA의 청소년 운동

한국YWCA연합회는 1922년 설립 당시부터 청소년들이 주체로서 참여하여 활동해 온 청소년단체입니다. Y-틴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Y다운 리더로 성장해 감으로써 생명, 정의, 평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회원 스스로가 각 동아리의 활동을 계획.실행.평가하는 주체적인 청소년운동조직 입니다.



- ① 기독교성에 근거한 비전
- ② 구성원의 재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팀
- ③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YWCA의 청소년 운동은 위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YWCA가 지향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리더를 Y다운 리더라고 부릅니다.

